

이재명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확고한 중심...공정한 세상 함께 만들어가자"

17일 경기상상캠퍼스에서 제3회 경기도민의 날 기념식 및 제2회 경기도민 정책축제 개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민의 날을 맞아 "경기도는 더 이상 서울의 외곽이 아니라 확고한 대한민국의 중심이 됐다"며 "자부심과 책임을 느끼고 역강부약(抑強扶弱)을 통해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위해 함께 나아가자"고 말했다.
17일 수원시 서둔동 경기상상캠퍼스에서 열린 제3회 경기도민의 날 기념식에는 이 지사를 비롯해 백혜련 국회의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정승현 도의회 운영위원장, 이재강 평화부지사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 지사는 기념사에서 "경기도의 주인은 경기도민이다. 취임 이후 공직자들과 토틀 토틀서 도의 예산과 권력이 오로지 도민과 경기도 발전에 쓰이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한다"며 "그 결과로 다양한 곳에서 성과들이 쌓이다 보니 도민들께서 이제는 경기도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에는 대한민국 인구 4분의 1이 넘게 거주하고 있고 경제

력 등 중요성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북한과 접경하고 있어 통일과 남북교류협력 책임 또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며 "경기도는 이제 어딘가의 변방이나 주변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확고한 중심이므로 이에 걸맞게 우리 모두가 큰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껴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경기도의 도정 모토는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으로, 공정한 세상은 공동체가 해체되지 않고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대책"이라며 "함께 사는 대동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강자들의 일방적 횡포를 제어하고 다수 약자들의 억울한 상황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도민의 동참을 당부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부대행사를 생략하고 소규모로 마련된 기념식에서는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도민 8명을 분야별로 선정해 시상하는 '경기도 민상' 시상과 도민헌장 낭독도 진행됐다. 이와 함께 도민이 직접 참여해 정책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숙의(熟

議)민주주의 실현의 장'인 '제2회 경기도민 정책축제'는 16일에 이어 17일까지 온·오프라인 동시에 진행됐다. 정책토론회 참가자들은 경기 상상캠퍼스 야외부스 5곳에 분산 배치돼 16일 오전·오후, 17일 오전 총 3회 15개 토론주제로 열린 토론을 벌였다. 이번 축제에서 논의된 토론의제는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복지거버넌스의 과제 ▲코로나19 이후 경기도 먹거리 보장사업의 변화 ▲관찰사의 시선' 경기도민의 방송 참가가 나아갈 방향 ▲대안유아교육기관은 무상급식 사각지대인가 ▲경기도 마을정책플랫폼의 설계 제안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안심하고 월경할 권리'를!(경기도 보편적지급 의미와 과제) ▲기후·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는 경기도형 그린뉴딜 추진 방안 ▲코로나19시대 문화예술정책의 방향과 예술인 기본소득 ▲경기도민 지역순환경제 시스템 만들기 ▲경기도 중장기계획 협치프로세스 실현방안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가정양육을 다시 생각해보자(경기도 조부모 육아지원금 지급 정책도입 방안) ▲장애인 콜택시는 달리고 싶다!(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수도권 통합운영방안) ▲경기도 청소년 권익지원을 위



한 단체네트워크 구성 어떻게 할 것인가? ▲민주시민교육, 다가치시민 프로세스를 제안하다 ▲숲속 마을을 꿈꾼다 - 공동주택 수목 공동관리정책 제안이다. 마지막 프로그램인 종합토론에서는 정책토론회를 주관한 15개 토론단체가 토론 결과 등을 발표하고 의견을 정리하고 정책축제를 마무리했다. 경기도는 정책축제에서 다뤄진 토론의제와 의견을 부서별로 구분해, 각 부서가 간담회와 평가보고회 등 수차례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도정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상찬기자

새로운 경기도 노래 작곡 공모에 1,084건 접수...도민심사위원단 모집

경기도가 친일잔재 청산을 위해 진행 중인 '새로운 경기도 노래' 작곡 공모전에 1천개가 넘는 작품이 접수됐다. 경기도는 지난 달 28일까지 작곡 공모를 실시한 결과 1,084곡이 공모에 참여했다며 경기도 노래를 선정할 도민심사위원단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4월 노랫말 공모를 통해 선정된 총 3개의 노랫말을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작곡 공모를 추진했다. 접수된 작품은 대표성, 창의성, 적합성, 완성도를 심사기준으로 1단계 전문가 평가와 2단계 도민 오디션, 3단계 온라인 도민투표 결과를 합산해 최종 경기도 노래를 선정하게 된다. 1단계 전문가 심사는 지난 14일 진행됐는데 '아모르파티' 작곡가 윤일상 심사위원장, 서울예대 실용음악과 교수 강호정, '릭스' 멤버이자 작곡가 정원영, '포지션' 멤버 안정훈, 가수 리아, 단국대 작곡과 교수 백영은 등 대중음악/클래식/국악/융복합 분야 전문가 12명이 참여했다. 윤일상 심사위원장은 "새로운 경기도 노래는 공식적인 행사에서만 불리던 관행을 벗어나 귀에 쏙쏙 들어오고 입으로 흥얼거릴 수 있는 도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곡을 우선으로 심사했다"고 밝혔다. 도는 전문가 심사에서 선정된

상위 10개 노래를 놓고 11월 초 2차 도민참여 오디션을 진행할 예정이다. 도민참여 오디션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고려해 비대면 온라인 심사로 진행하며, 윤일상 심사위원장을 포함한 전문가 3인과 50인의 경기도민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도민심사위원단 참여를 원한다면 신청서를 작성해 경기문화재단(ggsong@ggcf.go.kr)으로 접수하면 되고, 심사에 참여한 도민에게는 소정의 상품이 제공될 예정이다. 참여 신청 접수는 19일부터 28일까지 열흘간 진행되고, 자세한 내용은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https://ggcf.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차 도민오디션과 3차 온라인 도민투표 결과를 합산해 최종 선정된 노래는 편곡 과정을 거쳐 내년 1월 초 공개될 예정이다. 오대석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경기도는 2018년부터 경기천년을 기념해 10월 18일을 경기도민의 날로 지정했으나 아직 경기도 노래가 없는 상황"이라며 "작곡부터 심사까지 도민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경기도 노래가 변화된 시대상과 경기도의 비전 및 정체성을 담은 곡으로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상찬기자

광명시! 공정무역으로 세상을 바꾼다!

박승원 광명시장 "뜨겁고 정성이 담긴 제품, 공정하게 거래되는 공정한 세상 만들기 앞장설 것"

광명시는 17일 오후 광명극장과 평생학습원 전시실에서 '뜨겁! 뜨겁! 공정무역' 공정무역도시 인증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광명시와 경기도 공동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박승원 광명시장, 원미정 경기도의회 의원, 장승권 성공회대 교수, 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 한금희 위원장 등이 참석해 광명시의 국내 8번째 공정무역도시 인증을 축하하고 시민에게 공정무역을 쉽고 재미있게 알리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는 공정무역 천기관-종교단체 추진 선언식, 공정무역 토크 콘서트, 공이 정이(광명시 공정무역 캐릭터)네 전시실 둘러보기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광명시 공식 유튜브 채널 광명시광명씨를 통해 생중계됐다.
공정무역도시 인증 현판식은 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 한금희 위원장과 공이 영상 속의 박승원 광명시장에게 현판을 전달하면 광명시청 입구에 현판을 다는 영상이 송출

되는 형식으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넘나드는 이색적인 방식으로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이어 광명시 청소년재단, 광명서초등학교, 남광교회, 넓은세상작은도서관 등 4곳이 공감과 연대, 높은 시민의식으로 공정무역에 함께하겠다는 의미로 공정무역 추진 선언문을 낭독했다. 개그맨 노정렬의 사회로 진행된 토크 콘서트에는 박승원 광명시장, 원미정 경기도의회 의원, 장승권 성공회대 교수, 배우 정은표 씨가 '공정무역, 얼마나 알고 있나요?' '공정무역, 정말 공정.한가?' '경기도, 공정무역을 선도하다' '광명, 공정무역도시로 빛나다' '공정무역, 앞으로의 방향은?'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장승권 성공회대 교수는 "저개발국 생산자들에게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가려면 공정무역이 우리 사회에서 주류가 되어야 한다. 광명시가 공정무역도시로서 생산자와 자매 결연을 맺어 서로 소통을 통해 공정무역을 이해하고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공정무역 제품의 소비뿐 아니라 생산자와의 교류·협력을 통해 사람의 뜨겁고 정성이 담긴 제품이 공정하게 거래되는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데 광명시가 앞

장서겠다"고 말했다. 광명시는 이날 평생학습원 1층에 시민에게 공정무역을 쉽게 알릴 수 있도록 공이 정이네 카페가 있는 전시실을 만들어 공정무역 제품을 전시하고 홍보자료 등을 비치했다. 전시실은 10월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광명시는 지난 해 10월 공정무역 추진을 선언하고 찾아가는 공정무역 차담회, 청소년 공정무역 활동, 시민을 위한 공정무역 강좌, 공정 무역 캠페인 등 착한 소비에 앞장서 왔으며 지난 8월 20일 국제공정무역마을위원회의 한국인증기관인 (사)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로부터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화성시, 하남시, 부천시, 계양구에 이어 국내 8번째로 공정무역도시 인증을 받았다.

전순희.최정무기자



성장현 용산구청장, 온전한 용산공원 조성 약속

용산구, 제27회 구민의 날 기념식 성료

"온전한 국가공원 조성을 위해 잔류시설을 이전하거나 재배치해야 합니다. 한미 양국이 서로 윈윈하는 방법을 찾아내겠습니다. 지난 16일 용산공원 개방부지(옛 장교숙소 5단지, 서빙고로 221)에서 열린 '제27회 용산구민의 날 기념식'에서 성장현 용산구청장이 기념사를 통해 온전한 용산공원 조성을 약속했다.
성 구청장은 "용산공원 북측 미대사관 직원 숙소도 아세아아파트 개발지역으로 옮기도록 계획을 조정, 녹지축 단절을 막고 주민 공원 접근성을 개선했다"며 "후대에 부끄럽지 않은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용산이 나서서 방안을 찾고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구청장은 이봉창 의사 기념관 준공 소식도 알렸다. 그는 "오는 21일 효창동에서 나고 자라, 조국의 독립을 위해 일제의 심장부에 목숨을 던진 독립영웅 이봉창 의사 기념관이 준공된다"며 "기념관을 방문해 의사를 추모하고 독립투쟁 기개를 되새겨 달라"고 주민들에게 요청했다. 성 구청장은 "지난 8월에 준공된 청년 커뮤니티공간 '청년지움'과 용산의 혁신성장을 견인

해 줄 청년기업 입주 공간인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조성을 마치고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며 "청년들이 어깨를 펴고 높이 날아오를 수 있도록 돕겠다"고 선언했다. 개발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성 구청장은 "용산 곳곳의 개발 사업이 모두 순항중"이라며 "한남뉴타운 전체는 순풍이 불어 한남동 일대가 천지개벽할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무려 1800억원이 투입돼 효창공원을 대한민국 정체성의 상징으로 발돋움하게 할 독립운동 100년 기념 공원 사업이 용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구청장은 '뜨거운 감자' 국제업무지구 개발에 관해서도 논했다. 그는 "남북철길이 연결되면 유럽의 관문이 바로 용산이고 그 중심에 국제업무단지가 있다"며 "국제 경제 허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방정부로서 더욱 강력하게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날 기념식은 116년 만에 우리 품으로 돌아온 용산미군기지(용산공원)에서 열린 첫 지자체 공식 행사로 눈길을 끌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감안, 구는 비대면 형태로 행사를 진행, 참석인원을 최소화시켰으며 행사 전 과정을 유튜브로 생중

계했다. 용산구민의 날은 행정구역상 '서울특별시 용산구'가 처음 생긴 1946년 10월 18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구는 지난 1994년부터 10월 18일을 전후해 매년 기념식을 이어오고 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용산공원 개방부지에서 역사적인 구민의 날 기념식을 가졌다"며 "더불어 행복 용산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1300여 공직자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Advertisement for Yangju City. Features stylized figures in blue and green, and text: '함께하는 감동 양주 NEW & NEW 새로운 도약, 신성장 활력도시 Yangju 양주시'.

### “공공의료 기반 취약, 지역 간 의료격차 심화 심각, 의료선진국 맞나?”

#### 강득구 의원, “공공의료 역량 강화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 공공의료 기반 확충 위한 특단의 대책 필요”

공공의료기관 수가 전체 의료기관 수 대비 5.8%로 OECD 평균 보다 약 10배 정도로 더 낮은 등 전체적으로 공공의료 기반이 매우 취약한 가운데, 지역 간 의료격차 심화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공공보건 의뢰로 관련 각종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강득구 의원실이 2017년 공공보건 의료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 수 비중은 전체 의료기관 수 대비 5.8%로 OECD 평균보다 9.2배, 전체 공공의료기관 병상 수 비중은 전체 병상 수 대비 10.5%로 OECD 평균보다 7.1배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지표 모두 OECD 비교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이는 그만큼 공공의료 기반이 매우 취약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시스템은 민간 의료에 기반한 결과라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러한 공공의료의 취약성에 더해 지역 간 의료격차 심화 역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득구 의원실이 2017년 보건복지부 국민보건 의료실태조사, 보건복지부 제1차 공공보건 의료 기본계획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인구 10만명 당 의사 수’는 전국 평균 172명 수준이지만 서울은 267명, 경북은 116명, 울산은 123명으로 나타났다. ‘인구 10만명 당 간호사 수’는 전국 평균 248명 수준이지만 서울은 345명, 충남은 154명, 충북은 170명인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지역간 의료격차로 양질의 의료조치를 제때 받지 못해 사망한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인구 10만명 당 치료 가능한 사망자 수’는 2015년 기준으로 서울은 44.6명, 충북은 58.5명, 서울 강남구는 29.6%, 경북 영양군은 107.8명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강득구 의원은 “공공의료 기반이 OECD 비교국가 중 최하위라는 사실은 의료선진국이라는 대한민국의 공공의료의 부끄러운 자화상을 보여준 결과이다. 의료선진국이 맞나 의심스러울 정도이다”고 지적하고 “코로나19라는 국가적인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공공의료 인력 확보와 공공의료 역량 강화의 중요성은 국민적 공감대를 이미 형성했다.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공의료기관 확대와 공공의료 인력 확충 등 공공의료 기반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광수기자

### 예술사업비 감소 시켜 수지차 보전하는 예술의 전당. 오페라, 무용, 미술, 서예는 설 곳을 잃는다.

경기 광명갑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예술의전당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7년 수지차보전 기관 지정 이후 사업비절감을 위해 정작 예술사업은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예술사업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데 납부해야 할 세금은 더 늘어나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예술의전당 지원(국고) 내 예술사업비는 17년 5.75억(8.1%), 18년 8.06억(9.0%), 19년 4.4억(4.7%)에서 20년에 4.3억원(4.6%)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2017년 수지차보전 전기관 지정 이후 일시적으로 예술사업 비중이 높아졌으나, 예술사업 적자 발생 확인 후 지속적으로 비중이 감소한 것이다. 예술사업은 지출대비 수입이 적은 적자사업이라는 것이 예술의 전당

측 설명인데 공연기획사업 수익률은 15년 △8.5%에서 16년 △20.3%, 17년 △34.9%를 거쳐 18년에 △11.2%, 19년에 △30.7%가 감소했다. 특히 2019년 수지 적자폭은 10억에서 3억으로 7억이 감소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예술사업비 지출이 53억에서 43억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적자폭을 낮추기 위해 예술사업을 줄인 결과는 적자사업인 오페라·무용공연 및 미술·서예사업 축소로 귀결된다. 수익성 확대를 위해 자체예술사업을 줄이고 대관사업 등을 확대하면 사업비를 절감하므로 수익이 많이 발생하겠지만 결국 새로운 예술경향을 선도 하는 기관의 설립목적이 훼손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런데 이 와중에 지방세 특례제한법 등이 개정되면서 추가 납부해야 할 종부세, 주민세, 재산세 등 세금 규모가 8억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부담만 더 증가하게 됐다. 이에 대해 임오경 의원은 ‘19년 국회에서 예술의전당에 국고지원 확대 등을 통해 직접 제작하는 문화예술사업을 활성화하고 문화취약계층 관람 기회 확대를 지정한 바가 있다’며 ‘기초예술분야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문체부가 적극적 대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전순희기자



## 자치분권 실현 경기북부 배려정책 ‘초석’ 마련... 지방발전 이끄는 ‘디딤돌 의회’ 될 것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제10대 의회 후반기 의장단 취임 100일을 기념해 의회사무처 직원들에게 ‘백일떡’을 손수 나눠주며 감사와 존중의 마음을 전했다. 장현국 의장을 비롯한 진용복·문경희 부의장 등 의장단은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16일 이른 시각부터 1층 로비에서 대기하며 출근하는 직원 한 명 한 명을 반갑게 맞이했다. 의장단은 숫자 ‘100’이 새겨진 백일떡을 건네며 “고맙습니다”, “수고했다”, “함께 힘냅시다” 등의 격려 인사를 전했다. 이번 ‘백일떡 나눔행사’는 코로나19로 열악한 여건 속에서 의정활동을 충실하게 지원해 온 직원들을 격려하며 취임 100일의 의미를 더욱 뜻깊게 담아 내자는 문경희 부의장의 제안에 따라 추진됐다. 장현국 의장은 “의회사무처 가족들의 헌신과 깊은 사명감 덕분에 지난 100일간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었다”며 “함께 가는 길목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코로나19의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자”고 당부했다. 도민행복과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디딤돌 의회’를 핵심기조로 내걸고 지난 7월 10일 새 출발을 알린 제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가 17일 100일을 맞는다. 장현국 의장은 취임 일성에서 ‘참여·존중·소통·공감·도민중심’의 후반기 의회 비전을 선포하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시기에 의장이 된 만큼 희망을 만들고 도민행복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치분권 실현, 북부지역 배려정책 추진, 현장중심 의정활동 실시, 정책공약 완성 등의 목표를 향해 힘 없이 달려온 ‘디딤돌 의회’ 100일의 발자취를 되짚어 본다. 장현국 의장은 지난 100일의 의정활동에 대해 “후반기 의회의 핵심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주춧돌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전국 최초로 조례에 근거한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발족하고 ‘북부발전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자치분권 관련 정책방안을 지방의회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모색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도모하는 등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경기도의회가 야심차게 구성한 자체기구다.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을 근거로 하며 역할의 중요성을 감안해 장현국 의장이 위원장을 맡고 진용복 부의장이 부위원장 및 총괄추진단장을 맡았다. 자치분권·자치행정·재정분권 3개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총 23명의 위원이 지방자치 관련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의회 사상 최초로 추진되는 의회 북부발전 실시는 장현국 의장의 핵심 공약사항 중 하나다. 북부발전 실적을 본격화하기 위해 추진위를 구성했으며 경기북부 주요도시인 남양주를 지역구로 둔 문경희 부의장이 위원장을 맡음으로써 실효성을 극대화했다.

도의회와 학계인사, 변호사 등 내·외부 전문가 21명으로 꾸려진 위원 위촉을 마치고 연구용역에 착수한 상태로 추후 회의를 통해 북부발전 설치타당성과 소요재원, 운영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장현국 의장은 “지방의 염원인 ‘실질적 자치분권’을 구현하기 위해 지방의회가 일회성 행사에서 탈피해 주체적으로 행동에 나섰다”는 점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평가하며 “북부발전의 경우 지방의회 역사에 기록될 첫 도전인 만큼 철저히 고민하며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평소 장현국 의장은 “도민 일상 마디마디에 서려있는 고충과 아픔은 서류 몇 장으로 가능할 수 없다”며 현장중심 의정활동의 중요성을 시사해왔다. 이에 취임 직후 ‘찾아가는 현장도의회’를 조직하고 경기지역 주요 민생현장과 SOC사업 현장, 교육현장을 부지런히 방문했다. ‘찾아가는 현장 도의회’는 의장이 주요현장에서 도민과 직접 소통하고 현안을 파악하는 방식의 ‘발로 뛰는 의정시스템’이다. 지난 100일간 코로나19 장기화와 장마로 이중고를 겪은 전통시장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관계자, 방역활동 최일선인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의료진 및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검사하는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를 만났다. 현장에서 파악한 실

질적 어려움에 대해서는 의회차원의 지원방안 등 해결책을 모색할 방침이다. 현장중심 의정활동은 전반기 의회 최대 성과인 ‘정책공약’ 완성과도 맞닿아 있다. 정책공약이란 의원별 선거공약을 유사한 내용으로 묶어 정책화할 수 있도록 재구성한 공약으로 전반기 의회는 의원 142명의 전체 선거공약 4,192건을 집대성해 정책공약을 구성하고 4초 이상의 예산을 반영하는 결실을 거뒀다. 이에 후반기 의회는 2021년 본예산 사업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총 52건의 정책을 81건의 세부사업으로 도출해 지난 9월 집행부에 제안했다. 특히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공공서비스 디지털화’, ‘비대면 산업 육성지원’,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등을 새롭게 추가하는 등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는 데 주력했다. 코로나 시국에 꼭 필요한 ‘사회적 거리두기 형 의정활동’을 수행하며 다른 지방의회가 참고할만한 의정활동의 ‘모범답안’을 제시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장현국 의장은 ‘후반기 코로나19 대응 비상대책본부’를 새롭게 구성하고 코로나19 국면 속 의정활동의 방향을 고민해왔다. 이에 코로나19 ‘2차 대유행’의 현실화 직후 진행된 ‘제346회 임시회’에서 도정질문 시기를 연기하고 전자회의시스템 활용, 도정질의 최소화, 서면자료 대체 등을 통해 본회의 회의시간을 최대한 단축했다. 8·9월 정 예정

된 상임위 현장방문 일정도 전면 취소했다. 특히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에 비말차단용 칸막이를 설치하고 본회의 참석인원 비율을 의석수 대비 65% 수준으로 최소화해 ‘의석 간 거리두기’를 실시하는 등 이른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형 임시회’로 의정활동 방역수칙을 대폭 강화했다. 이와 함께,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한정판 지역화폐’이 지원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 제안하고 추경예산을 편성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했다. 이 외에도 온라인 화상회의 활성화 등을 통해 ‘비대면 의정활동 체계’를 구축하는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며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를 딛고 후반기 의회의 활동 기반을 성공적으로 다져낸 장현국 의장의

최대 목표는 ‘디딤돌 의회’ 확립이다. 후반기 의회 핵심과제인 ‘자치분권 실현’과 ‘북부발전 설치’를 두 부의장이 각각 총괄하도록 조직을 구성한 것은 이 때문이다. 의장단이 의기투합해 낱알의 부분까지 짜임새 있게 조직하며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의원별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디딤돌’ 역할을 구현하겠다는 구상이다. 장현국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인구와 의석수 규모로 보나, 정책 추진력으로 보나 전국 17개 광역의회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으뜸 지방의회”며 “부단한 도전과 왕성한 활동으로 경기도를 넘어 다른 지방의회에도 ‘디딤돌’을 제공하며 지방전체의 발전을 이끄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사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찬기자

www.wawa105sujin.com 문화매일 facebook.com/wawa105sujin

우편번호: 08333 서울 구로구 개봉로 12길 9-19 105동 201호  
우편번호: 14222 광명시 시청로7 흥신에이스텔 701호

발행·편집인: 최수진 / 부회장 박상찬 / 사장 박우석 / 편집국장: 최계은  
청소년 보호 책임자 발행인: 최수진

대표전화: 1899-9659 e-mail: ekwk44@naver.com sujinn004344@daum.net

2009년 4월 12일 창간      정 차 부: 내선 (112)      문 화 부: 내선 (116)  
2009년 3월 12일 등록번호: 경기.가50079      사 회 부: 내선 (113)      부 동 산 부: 내선 (117)  
본지는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한다      경 계 부: 내선 (114)      오피니언부: 내선 (118)  
대표전화: 1899-9659      스포츠부: 내선 (115)      지 방 부: 내선 (119)  
편집국: (02)2612-2959  
팩 스: (02)2060-4147      구독신청·배달안내: 1899-9659 구독료: 월 15,000 1부 800원

**농수산물**은 **진도** 것이 최고지라~

진도아리랑몰    검색   

청정 농수산물 공동브랜드

# 해남미소 절임배추 오는 20일부터 사전예약

### 올 김장은 최상품 배추 출하되는 11월 중순부터 하세

해남군청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는 오는 20일부터 청정해남 절임배추 사전예약을 시작한다.올해 해남미소 절임배추 가격은 20kg 1박스에 해협인중 4만3,000원, 농산물우수관리인증 4만1,000원, 일반은 4만원이다. 배추 율품 가격의 상승과 인건비 및 부재료, 택배비 상승 등으로 지난해 대비 10% 가량 인상됐으며 해남미소에 입점된 절임배추 생산 업체 회의를 통해 가격을 동일하게 결정했다.특히 해남미소를 통해 사전 예약시 일반 판매 금액보다 10~2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으며 소비자 배송일을 지정해 원하는 날에 받을 수 있다.긴 장마와 연이은 태풍으로 올해는 배추 정식시기가 늦어져, 최상품 배추로 김장을 하기 위해서는 11월 중순 이후로 김장 시기를 잡는 것을 권하고 있다.해남배추는 중부지방의 작기가 짧은 배추에 비해 70~90일을 충분히 키워내면서 쉽게 물러지지 않고 황도판에서 해풍을 맞고 자라 풍부한 영양으로 타지역산에 비해 소비자 선호



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해남배추를 원료로 한 절임배추는 지난해 관내 911농가에서 205만 7,908박스를 판매, 723여억원의 매출을 기록할 정도로 높은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해남미소에서는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대한민국 소풍주간 2020 코리아 세일페스타 행사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절임배추와 함께 각종 김장 재료도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양영욱/기자

다.군 관계자는“해남미소 절임배추는 명품 배추로 인정받고 있는 해남배추를 원료로 엄격한 품질관리로 생산된 제품만을 판매해 소비자 신뢰도가 매우 높은 품목이다”며“올해 배추값 상승으로 김장 걱정이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 예약을 통해 절임배추를 원하는 시기에 받아 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 인구 4만 보성군의 반란 대한민국 캐릭터 대상 수상

### 제3회 우리동네 캐릭터에서 인구4만 보성군 우승 차지

보성군에서 만든 특산물 캐릭터 'BS삼총사'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한 제3회 우리동네 캐릭터 대상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인구 4만여명의 보성군은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강원도, 고양시 등 백만이 넘는 인구를 보유한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활발한 홍보 활동 등을 통해 최다 득표수를 기록하며 우승을 차지했다. 'BS삼총사'는 보성군 대표 특산물인 녹차, 꼬막, 키위를 형상화해 캐릭터로 만들어졌으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지역 농가를 돕기 위해 공무원들이 직접 만든 '착한 캐릭터'로 보성군 유튜브 브를 비롯한 SNS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특히 일반적으로 수천만원에서 여대 예산이 들어가는 전문 기관 캐릭터 개발 영역을 거치지 않고 보성군 홍보팀 공무원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모아 기획해 디자인 비용 3백만원만으로 캐릭터를 만들었다는 점도 이슈가 됐다.여대 최다 지자체가 참가한 이번 '우리동네 캐릭픽'에서 보성군은 군 단위에서는 유일하게 본



선에 진출하며 슈퍼루키로 떠올랐으며 본선에서는 광역지자체와 수도권 중심 자치단체와의 경쟁에서 이기면서 모두를 놀라게 하는 등 중소자치단체의 지력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김철우 보성군수는 “코로나 19로 침체된 상황에서 군민과 향우가 한마음 한뜻으로 결집하는 계기가 된 것 같아 뜻깊고 그동안 SNS 기반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왔던 보성군의 노하우와 군민의 염원 등이 복합적

으로 동기부여가 돼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낸 것 같다”며 “보성군민을 비롯한 공직자, 출향향우, 관광객, 주변 관공서 등 정말 많은 분들이 투표에 적극 동참해 주신 결과 1위를 수상할 수 있었고 많은 분들이 보내주시신 관심과 사랑에 걸맞게 지역민과 상생하며 지역을 알리고 지역 농가를 살리는 착하고 실속 있는 캐릭터로 성장시켜가겠다”고 말했다.

김영만/기자

# ‘특별전시 ‘신령스러운 빛 영광’ 개최

### 영광군-국립나주박물관 전시개관준비 및 홍보활동에 박차

영광군과 국립나주박물관은 오는 20일부터 국립나주박물관 1층 특별전시실에서 ‘신령스러운 빛 영광’ 특별전을 개최한다. 영광군과 국립나주박물관은 성공적인 특별전 개최를 위해 지난 2월 12일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8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전시 개관 준비에 임했다.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방대한 양의 문헌조사와 수차례 현지 조사 등을 통해 많은 수집자료를 분석하고 영광군의 역사문화 특성에 적합한 전시를 기획했다. 이번 전시는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 영광군의 역사와 문화를 종합적

으로 정리한 학술적 성과를 시각화했고 디지털 영상 등을 활용해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연출했다. 특히 이번 특별전은 전국 각 기관에 흩어져 있던 영광군 역사자료뿐만 아니라, 지역 중증에서 소중히 보관해 오던 문중 보물까지 전시해 더욱더 풍요로운 전시가 될 거라 기대된다.전시개관일이 다가오면서 양기관은 많은 관람객에게 전시를 선보이기 위해 곳곳에 포스터를 부착하고 현수막 개첨과 SNS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김준성 영광군수는 “코로나19로 많은 군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이번 전시가 문화유산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우리 군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만/기자



# 의성군, 안계전통시장 브랜드 대축제 개최

의성군은 안계전통시장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안계전통시장 브랜드 대축제’가 오는 10월 21일 안계전통시장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전통시장 5대 과제 개선 실천운동, 브랜드선포식, 다드림 경품행사와 홍보기념품 증정, 축하공연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또한, 특성과 첫걸음시장 육성사업으로 개발된 안계전통시장 브랜드와 캐릭터는 의성군이 지원하고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주관해 개발했으며 브랜드 상징로고는 안계의 편안하다는 ‘안’을 모티브로 해 ‘안계평야’, ‘쌀’, ‘비옥한 토지’와 함께 결실을 맺는 ‘안’을 상징하는 3대 고객서비스 개선을 다짐하는 상인들의 의지를 5가지 색상으로 조합해 표현했다.더불어, 시장캐릭터인 ‘진짜리’는 새로운 활력을 일으킬 ‘젊은 장꾼’을 상징한다. 군은 대축제에 앞서 지난 16일 결제편의, 고객신뢰,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금지를 주제로 전통시장 다다익선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다. 다다익선은 결제수단 ‘다’ 받아주고 가격 원산지 ‘다’ 표시하고 깨끗하고 쾌적해서 고객은 유·의·하게, 온누리상품권 유통은 ‘착’하게 라는 뜻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진행하는 캠페인이다.경품행사는 카드,



현금영수증과 제로페이 결제내역을 지참한 고객을 대상으로 코로나19와 관련 1단계 지침을 준수해 진행하며 온라인플랫폼을 활용한 라이브방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안계전통시장은 조선 후기부터 매월 1일·6일 개

설해오던 대표적인 오일장으로 깊은 역사와 문화를 자랑한다”며“이번 브랜드 대축제를 통해 안계전통시장이 새로운 역사의 첫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현석/기자

# 영주부석태 명품 콩전 ‘무량전, 사천왕전’상품화 출시

### 부석사 식당가에서 합심해서 만든 관광먹거리

영주시 부석면에 위치한 부석사 식당가는 지난 17일부터 영주에 특화된 명품콩 부석태를 활용해 만든 스토리가 있는 부석사 특화음식 ‘무량전’과 ‘사천왕전’ 메뉴 판매를 시작했다.이번 부석사 식당가의 스토리가 있는 특화음식 개발은 ‘2020년 제1회 공무원 상시 제안’에서 채택돼 지난 6월 11일에 부석사 식당가 영주 5명이 함께 모여 추진계획을 수립해 정기적인 모임과 협심을 통해 공동메뉴를 개발을 시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이에 영주시는 부석태를 활용한 스토리가 있는 ‘무량전’의 상품화를 위해 10여회에 걸쳐 요리전문가의 출강수업을 지원했으며 담당부서의 컨설팅을 통해 표준화된 레시피, 조리법, 판매가격, 홍보 지원방안을 서로 협의했다.특히 지난 7월 28일에는 시식평가를 통해 가격, 맛, 소비자의 반응 등을 조사했으며 이를 보완해 최종 ‘무량전’과 ‘사천왕전’을 모두메뉴로 판매하기로 결정하고 10월초 ‘무량전’ 상품화 준비를 모두 마쳤다.‘무량전’은 영주에 특화된 부석태를 활용한 콩전으로 밀가루 비율을 최소화하고 부석태가 50%이상 함유돼 몸에 좋고 또한 맛도 좋다.또한 ‘사천왕전’은 ‘무량전’에 동서남북 방향에 각기 다른 4가지 고명을 얹어 부위별로 색다른 맛을 느낄 수 있으며 오직 부석사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화음식으로 개발했다.‘무량전’과 ‘사천왕전’은 모두메뉴로 판매 가격은 12,000 원으로 판매 업소는 부석사 집단시설지구내 자미가, 부석사식당, 부석사종점식당, 평화식당, 명성식당 등 5개 업소이다.부석사 식당가에 위치한 평화식당 운영자인 조정혜씨



는 “‘코로나19’로 관광객이 많이 줄어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영주시의 가을철 대표적인 관광지인 부석사에 오셔서 아름다운 가을 경치도 관광하고 무량전을 드시면서 눈과 입이 모두 힐링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며 무량전에 대한 소감을 말했다.이정근 관광진흥과장은

“지역의 명품 콩인 부석태를 활용한 ‘무량전’이 부석사의 특화음식으로 자리잡아 부석사 집단시설지구뿐만 아니라 영주시 음식관광자원화를 통한 영주의 관광먹거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송인용/기자

# 고흥에서 울릉도 독도를 만나다

### 고흥 독도와 울릉도 독도 학술용역 보고회 개최

고흥군은 지난 14일 고흥 독도와 울릉도 독도 학술용역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송 군수와 부석장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호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그동안의 용역 추진상황을 보고했다. 용역의 연구책임자인 호남대학교 이영빈 교수는 고흥 독도와 울릉도 독도의 연계성 조사, 고흥인의 울릉도 독도 개척의 역사 고증, 고흥군의 독도 장소마케팅 전략에 대해 차례대로 발표했다. 옛 전라도인들의 울릉도 독도 개척사에서 흥양현사람들의 역할을 주인공으로 두고 고흥 나로도 주민들과의 심층 인터뷰, 역사문헌을 통해 옛 고흥선조들이 울릉도를 가게 된 목적, 고흥 독도에서 울릉도 독도의 명칭 유래 등이 역사적인 사실로 증명되고 있다고 호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힘주어 설명했다.송 군수는 ‘대한민국에서 울릉도 독도는 매우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고흥 독도가 울릉도 독도의 뿌리인 것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를 더 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울릉도 독도는 물리적인 거리와 기상 여건으로 견장한 성인들이 쉽게 접근을 하지 못한다’며 ‘이번 학술용역을 토대로 고흥에서 울릉도 독도를 대신 체험할 수 있도록 고흥 독도의 관광자원화도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고흥군 관계자는 울릉군과 우호교류, 군민·공직자들의 독도 탐방 등 고흥 독도와 울릉도 독도의 연계성

을 강화하기 위한 첫 단추를 꿰어나가고 있는데 의미있는 보고회가 됐다고 설명했다.한편 호남대학교에서는 지금까지 추진한 학술용역의 검증을 위해 10월23일 광주에 소재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고흥에서 독도까지’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영만/기자

# 조길형 시장, “자연과 생활이 조화로운 품격 있는 도시” 만든다

## 민선 7기 후반기 시정 방향 제시, 경제활성화도 함께

조길형 충주시장이 민선 7기 후반기의 키워드로 ‘자연과 생활이 조화로운 품격 있는 도시’를 제시했다.

조 시장은 15일 주재한 정책토론회에서 “민선 7기 전반기의 핵심은 좋은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자라나는 세대가 머물며 경제활동을 하는 지속가능한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을 이끌어내는 데에 있었다”며 “앞으로는 경제활성화에 꾸준한 힘을 쏟는 것과 함께 시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일에도 관심을 집중해야 할 때”고 말했다. 이를 위해 “상수도, 도시가스, 생활 쓰레기 등 기초생활 시설의 기반확충과 처리체계를 잘 갖춰서 시민 모두가 일상에서 편안하고 만족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충주의 자연환경은 전국 어느 곳과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자신하면서 “지역 곳곳에 잠재된 자연의 아름다움을 잘 관리해서 시민들의 일상과 관광객들이 충주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의 휴식을 얻을 수 있는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시정 전 부서가 분야별로 시

민들에게 좋은 경관으로 알음알음 알려진 친숙한 장소, 잠재력을 가진 장소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키워 내야 한다”며 “생태공원, 시민의 숲, 수생정원 등 생활권과 가까운 곳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도시디자인도 고심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 시장은 능암늪지 생태공원을 예로 들며 “다수 방문객의 접근성을 고려한 진입로 개설, 민물 생태 체험관·명품정원·무술공원 등과 연계한 코스 개발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공동체 조성된 장소가 알려지지 못해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에도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조길형 시장은 “짧은 유행에 반짝하는 새로운 시설을 개발하는 전략보다는 충주의 고유한 매력을 잘 가꿔서 색을 입히고 멋을 더해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몇 번이고 다시 찾고 싶은 품격 있는 도시를 완성할 수 있다”며 “향이 좋은 차를 음미하듯 깊은 자연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충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 “작지만 의미있게” 2020 여수시민의 날 기념식 축소 개최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시민 등 50여명 참석, SNS 실시간 생중계

2020 여수시민의 날 기념식이 15일 여수문화홀에서 열렸다.

코로나19 지역 감염 예방을 위해 지역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시민을 추천받아 50여명만 참석하는 행사로 대폭 축소해 작지만 의미있게 개최됐다. 정치권 대표 외에 노인, 여성, 청소년, 청년, 장애인 중 의미있는 시민과 경제계, 농업, 수산, 축산, 소상공인 등이 참석해서 올해 시민의 날을 기념했다. 기념식은 시민들의 참석이 제한되는 대신 행사 내용이 SNS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됐다.

올해 여수시민의 상은 교육과학기술부에 연구고 자율형공립고 선정에 큰 역할을 한 전)여수교육지원청 장애인 교육장이, 사회복지 부문에 소

의계층을 위해 힘쓴 여수YMCA 박원근 이사장이 수상했다.

자랑스런 여수인에는 한국 체육 발전을 이끌며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당시 오픈워터 경기를 여수에 개최하는데 크게 기여한 조선대학교 김민철 교수가 영예를 안았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여수를 중심으로 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남해안 남중권 유치를 통해 국제사회 기후변화 대응 선도도시 브랜드를 구축하고 2026년 세계 섬 박람회 개최 없이 준비해 세계를 품은 여수의 미래 100년을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민들께서 행복한 변화를 체감하고 여수에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지속가능한 시민정체를 펼쳐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남출/기자



## 쌍암공원 별밤 미술관, 이호국 초대전 개최

‘선을 그으며’, “우리에게 행복과 위안을 주는 예술” 평가 받아

광산구가 오는 17일부터 ‘별밤 미술관’ 두 번째 전시로 이호국 초대전 ‘선을 그으며’를 실시한다. 별밤 미술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예술인의 활동을 지원하고 비대면 전시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도심 속 찾아가는 미술 전시관. 이번 전시에서 이호국 작가는 광주 푸른길 풍경을 담은 ‘나들이’ 연작을 선보인다. 이 작품들은 일정한 방향의 고르고 반복적인 선들로 구성돼있다. 부드럽고 따뜻한 색채의 이 선들은 때론 나무와 사람도 또 때론 배경을 이루며 작품 전체에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이 작가는 작업노트에서 “선이 나의 조형언어이며 아이들과 나무는 행복을 전해주는 매개체이다”고 밝혔다. 김

이천 미술평론가는 나들이 연작에 대해 “겨우내 얼었던 대지와 나무에 싹과 움이 돌아 소생의 환희를 즐기는 모습으로 노래한다”며 “우리에게 행복과 위안을 주는 예술, 이호국의 그림이 갖는 미덕이지 않을까”고 평했다.

김덕윤/기자



## ‘50+ 어른학교’에서 코로나 블루 ‘홀홀’

오는 15일부터 전주시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서 프로그램별 선착순 접수 진행

전주시가 100세 시대에 맞춰 인생의 후반기를 준비하는 40~60대 시민들이 보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한다.시는 40~60대 시민들이 새로운 삶에 도전하고 커뮤니티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오는 19일부터 ‘50+ 어른학교’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지금 시작하는 50+ 어른학교’ 프로그램을 우울감과 무기력증 등 코로나 블루를 해결하고 비대면 시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 숲과의 교감을 즐기는 ‘숲 덕분에 안녕해요’ 합창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50+ 인생 하모니’ 멋진 섬진강 풍경을 마주하는 ‘50+ 섬진강 중주 프로젝트’ 자연 속에서 힐링하는 ‘백린이를 위한 백패킹’ 목공

으로 보람을 느끼는 ‘즐거운 생활 가구 만들기’ 온라인 콘텐츠제작 ‘스마트폰 온라인 강의 콘텐츠 제작’ 코로나 시대 비대면 교육에 필요한 특강 ‘Zoom 교육’ 등이 진행된다.

이밖에 민주시민교육 일환으로 진행되는 ‘인권, 아는 만큼 존엄해진다 &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생태시민 되기’는 수강생들의 필수 과정으로 민주시민으로서의 감수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 계획이라고 전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전주시 평생학습관 홈페이지를 통해 개강일과 강의시간 등을 확인한 후 오는 15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전주시 기획조정국 관계자는 “이번 50+ 어른학교에서는 시민들의 코로나 블루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비대면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다”며 “인생의 후반기를 고민하는 시민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해 행복한 삶을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승일/기자



## 전국 최고품질 산청딸기 출하 시작

2kg 1상자에 약 4만원 선

지리산 자락에서 자란 산청군의 햇 딸기가 출하를 시작했다.

16일 산청군은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을 수상, 맛과 품질을 인정받은 ‘지리산 산청 딸기’가 최근 본격적인 수확·출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산청군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산청딸기는 800여 농가가 430여 ha 면적에서 1만6500메트릭톤을 생산, 연간 1000억원의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효자작물이다.

산청은 3대강인 경호강, 덕천강, 양천강에 의해 형성된 충적토와 함께 겨울이면 지리산 자락 따뜻한 지하수의 영향으로 수막 보온이 가능해 딸기 재배에 안성맞춤이다. 특히 산청 딸기는 높은 당도와 선

명한 빛깔은 물론, 저장성이 탁월하다. 과육이 충실하고 신선함이 오래 유지돼 소비자들에게 호평을 받는다. 수확 초기에는 전량 서울가락시장 등 대도시로 판매되는데, 2kg에 4만원선으로 출하되고 있다. 최근에는 대만과 캄보디아 등 동남아 시장에도 수출되고 있다.

올해 산청군은 122t, 167만 달러 규모의 딸기를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지역을 비롯해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지역에 수출하고 있다.

산청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지리산 산청 딸기’는 지금부터 내년 5월까지 약 8개월 간 출하된다”며 “앞으로도 GAP인증과 전문재배기술교육, 하이베드 수경재배 시설지원사업 추진 등 명품 산청딸기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궁영기/기자

## 2020 김해독서대전 온라인 개최 23일~11월 30일 ‘북시티 김해’주제

김해시는 오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Book City 김해’를 주제로 ‘2020 김해독서대전’을 온라인 개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방식을 도입한 이번 독서대전은 개막식, 작가강연, 낭독공연대회, 브이로그 공모전 등의 다양한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독서대전 첫날인 23일 오후 2시에 개최되는 개막식은 2020 김해독서대전 공식 유튜브 채널인 ‘책 읽는 도시 김해’를 통해 실시간 중계된다.

이어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의 작가 채사장의 강연 ‘인문학적으로 생각하고 성장하기’ 역시 실시간 송출된다. 이와 함께 독서대전을 대표하는 전국 낭독공연대회 ‘품

온’이 온라인 방식으로 운영되며 시민들의 독서하는 모습, 책과 함께하는 일상의 모습을 볼 수 있는 ‘Book & Life 브이로그’ 공모전도 준비돼 있다. 또 ‘책 읽는 도시 김해’ 채널을 통해 시립도서관 소개영상, 김해독서대전 홍보영상, 행사 스케치 등의 다양한 온라인 영상들이 공개될 예정이다. 관내 시립·작은도서관 곳곳에서는 음악회, 인형극, 그림책 이야기기, UCC 공모전 등 다양한 행사들이 운영된다.

이외에도 유튜브 ‘책 읽는 도시 김해’ 채널 구독자를 위한 이벤트와 개막식 및 작가강연의 댓글을 선정해 소정의 상품을 증정하는 온라인 이벤트가 마련된다.

송인용/기자

## 이승옥 강진군수, 11개 읍면 들녘 영농현장 점검

이승옥 강진군수는 지난 14일부터 11개 읍면 벼 수확 현장을 찾아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농업인들의 위문에 나섰다.

올해는 바비, 마이삭, 하이선 등 잇따른 태풍으로 인한 도복, 흑백수가 발생해 상심이 큰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위로하고 격려했다. 벼 수확 현장에서 만난 강진읍 장동마을 김한탁 씨는 “바쁜 군정에도 들판을 다니시면서 영농현장을 찾아와 위로해 주셔서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사내 간척지 등에서 벼 8.3ha를 경작하는 신전면 송천마을 강대권 이장은 “가을벌이 내리뚝이 시원한 물한잔이 생각나던 터에 군수님께서 찾아와 주시어 힘이 난다”며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들판에서 만난 많은 농가들은 벼 생산량이 지난해 비해 20~30%가 감소했다고 전했다.

올해 생산한 벼를 도정해 택배 발송을 준비중인 정미소 사장 문 모 씨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벼 도정수율엔 별 차이가 없이 비슷하다.

벼 이삭이 필 무렵 태풍이 비껴갔는지 여부가 수확에 큰 영향을 끼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승옥 군수는 “올해는 긴 장마와 잦은 태풍으로 벼 수확량이 예년에 비해 감소될 것이 예상된다”며 “농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피해 벼를 품종 제한없이 전량 수매를 실시한다. 막바지 건조관리를 철저히 잘해 품질이 우수한 쌀을 생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장길/기자



# “단풍철 여행, 대규모 확산 빌미 될 수도”... 도,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당부

### 16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전일 0시 대비 17명 늘어난 4,769명

경기도가 단풍철을 맞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여행으로 인한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우려하며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했다.

김재훈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16일 코로나19 대응 정례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단풍절정인 10월 17일부터 11월 15일까지 가을철 방역 집중관리 기간으로 정함에 따라 여행 중에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며 방역수칙에 대해 설명했다. 단풍철 산행을 다녀올 계획이 있다면 산악회나 야유회 등을 통한 단체 산행은 자제하고 집 근처에서 가족 단위로 개인차량을 이용해야 한다. 또 산행 중에는 2m 이상 거리를 두고 침방울 감염의 위험도가 높은 함성이나 노래 부르기 등의 행위는 삼가야 한다.

음식물을 섭취할 때에는 서로 마주보지 않도록 하고 개방된 야외일지라도 마스크는 상시 착용해야 한다. 산행과 나들이 전후에는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꼭 확인하고 증상이 있다면 여행을 취소하거나 중도에 복귀해 지역 보건소에 방문해야 한다. 김 국장은 “가을 정취를 즐기되 대규모 확산의 빌미가 되지 않도록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방역수칙을 꼭 준수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16일 0시 기준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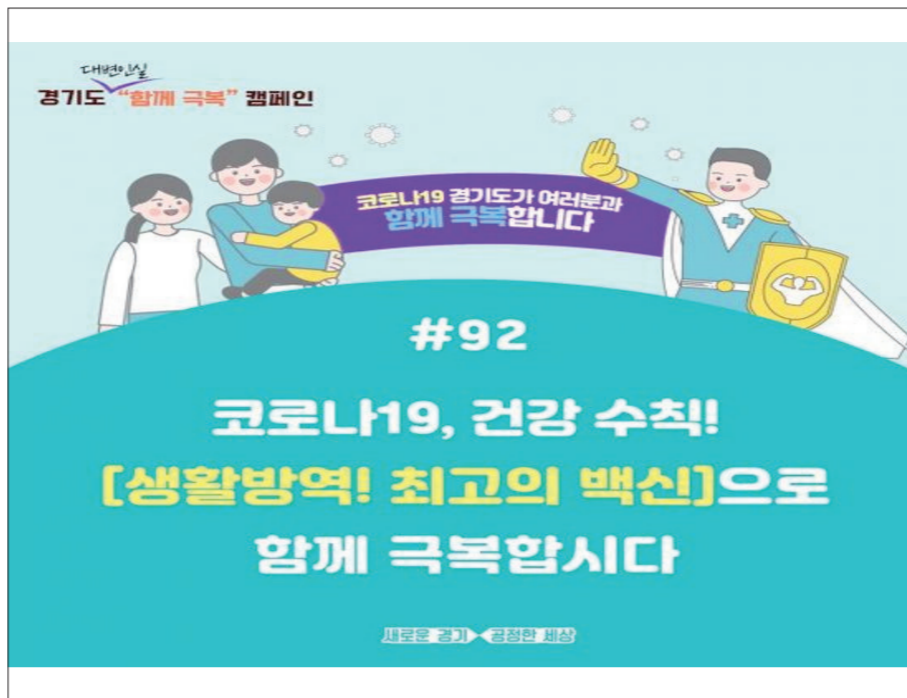
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대비 17명 증가한 총 4,769명으로 도내 9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동두천시 동네친구모임 관련 2명, 수원 중부지방 국제청 확진 관련 1명, 의정부 마스터플러스 재활병원 관련 2명 등이다. 신규 확진자 중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환자는 11.7%인 2명이고 60세 이상 고령자는 3명으로 17.6%를 차지한다.

동두천시에서 친구모임을 통해 전파됐을 것이라 추정되는 집단 감염 확진자가 16일 0시 기준 2명이 추가되어 24명으로 늘었다. 현재 확진자들과 접촉한 11명은 자가격리 조치했고 1명에 대해서는 능동감시 중이다. 수원 중부지방 국제청 근무자 1명이 5일 증상발현 이후 16일 0시 기준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자의 감염경로는 14일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 강남구 확진자인 모친과의 접촉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80명이 근무하던 7층을 폐쇄 후 소독완료했으며 총 25명을 검사 후 자가격리 14명, 능동감시 10명, 수동감시 1명 조치했다. 또한 팀별 2주간 자체 능동감시도록 했다.

의정부시 마스터플러스 재활병원 관련, 지난 6일 첫 발생 이후 16일 0시 기준 2명이 추가확진 판정을 받



면서 확진자는 모두 60명이 됐다. 신규 확진자는 환자 1명과 보호자 1명으로 13일 5층 격리환자 42명이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으로 이송된 이후 15일 진행된 4차 진단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았다. 재활병원 특성상 보호자나 간병인과의 접촉이 많은 만큼 음성 판정을 받은 40명에 대해서도 오는 19일 5차 진단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병원 3층에 96명, 4층에 56명이 격리돼 있는 상태이며 추가 진단검사 후 검사결과에 따

라 각각 21일과 19일에 격리 해제될 예정이다.

16일 0시 기준, 경기도는 총 16개 병원에 674개의 확진자 치료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 사용 중인 병상은 32.9%인 222병상이다. 이천시에 소재한 제3호 생활치료센터와 고양시에 소재한 제4호 생활치료센터에는 15일 오후 6시 기준 91명이 입소하고 있어 21.3%의 가동률을 보이며 잔여 수용가능 인원은 336명이다.

박상찬기자

# 영암사랑 상품권 불법유통행위 발 못붙인다

### 불법유통 신고센터와 신고포상제 운영 및 강력한 행정조치

영암군은 영암사랑 상품권의 불법 유통행위에 대한 불법유통 신고센터 및 신고포상제를 운영하는 등 불법유통 방지대책을 수립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금년 코로나 19관련 정책발행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 할인을 상향으로 상품권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상품권 결제 거절, 결제 시 웃돈 요구, 상품권을 목적 내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간 거래 등을 통한 불법환전 등 유통질서 교란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영암군에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전통시장 상인 등 가맹점 지정 및 카드·모바일 상품권 도입 제도마련, 할인가 한도액 조정과 가맹점의 환전 한도액을 제한하는 등 상품권 유통질서를 확립해 불법유통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다. 금년 대책은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인 상품권 관리 및 운영시스템 구축과 실질적인 불법유통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적인 보완책 마련 및 불법 감시체계 상시구축을 이를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영암사랑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을 한국조폐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지역사랑 상품권의 판매·환전·통계 등의 유통관리 전반의 모바일 상품권 서비스와 연동 및 통합관리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기존 판매대행기관

17개소에서 신협·새마을금고 등 31개소로 확대되어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상품권 발행방법도 지류상품권에서 카드형·모바일 상품권으로 확대해 구입내역과 결제 내역의 추적이 가능해져 불법행위를 방지하면서 지속적인 가맹점 모집으로 연말까지 1,600개소로 늘릴 방침이다. 특히 영암사랑 상품권 불법유통 및 불법 민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포상제를 실시할 방침으로 불법유통신고가 접수될 경우 현장을 확인해 부당이득금 환수, 가맹점 지정취소, 국제청 세무조사 의뢰 및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군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협조공문을 가맹점과 상인회 등에 발송하고 플래카드 게시, 문자메세지 안내, 홈페이지 팝업창등을 활용해 시책을 적극 홍보하면서 모니터 요원등을 활용한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등 불법유통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예방 활동에도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영암군수는 “시장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최소화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영암사랑 상품권이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불법유통 방지대책 마련을 통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노력을 다하겠으며 상품권의 정상유통으로 지역발전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군민들과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남출기자

# 정읍시, 불법 운행 자동차·건설기계 추방 발 벗고 나서

### 유령 자동차·건설기계 직권 말소등록 등 행정처분

정읍시가 도로 교통안전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시는 자동차 운행사고 피해자 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15일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안전 운행에 문제가 되는 건설기계 53대를 직권 말소등록 했다. 직권 등록말소 대상은 1981년부터 2017년까지 37년간 등록된 308대의 건설기계이며 정기검사 미수검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했다.

직권 말소등록 잔여분 255대의 건설기계에 대해서도 행정처분 절차가 완료되는 오는 12월 15일 직권 말소등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단, 직권 말소등록 기준일 이전까지 정기검사를 받은 건설기계는 이번 직권말소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의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승용·승합자동차와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등 5종의 자동차와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등 건설

기계 673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도로 불법 운행을 연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자동차사용자가 아닌 자가 운행하는 일명 ‘대포차’는 자동차 소유자와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운행정지 명령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사용신고를 하지 않은 이륜자동차 운행자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자에게는 과태료 50만원을 부과·징수한다.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 또는 화재로 자동차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거나 멸실된 자동차와 건설기계는 소유자에게 자동차 멸실인정서 발급을 신청하도록 해 말소등록을 추진할 예정이다.

멸실자동차 자진 신고 기간은 다음달 15일까지이며 멸실인정 차량은 자동차 관련 공과금 비과세 등 조세부담 경감의 혜택을 볼 수 있다. 한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는 의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와 건설기계는 도로를 운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일명 ‘대포차’ 등의 감소로 무보험 자동차 사고피해자가 다소나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무보험 교통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 안전의식의 확립과 도로의 안전 운행 질서를 정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하은/기자



# 함양군, 2020 하반기 체납액 징수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 재산압류·공매예고 등 강력한 행정제재

함양군은 지방재정 건정성 확보를 위해 16일부터 오는 12월말까지 약 75일 동안 2020년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함양군에서는 이번 체납액 징수 기간 동안 납세대만 등의 사유로 인한 단순 체납자들의 세금을 집중 징수할 예정이다. 징수 가능자 중심으로 방문 징수를 실시하고 읍·면 체납담당자들은 소액 체납자들에게 징수 독려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자동차세 2건 이상 및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주2회 이상 실시할 계획으로 담당부서의 차량 탑재형 영치시스템을 활용해 전 읍·면 순회 영치 활동을 펼친다.

영치된 번호판을 되찾기 위해서는 밀린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영치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차



량을 강제 견인해 공매처리 할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 유행으로 인한 경제 활동 위축으로 생계에 사용되는 차량은 직접 영치보다는 영치예고를 통한 납부를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고액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장기간 압류된 부동산을 적극 공매 처분할 예정이며 급여 및 신용 카드 매출채권, 금융자산에 대해서

도 압류·추심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행정제재를 통해 강력하게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체납액 징수 활동이 함양군의 자주재원 확보 및 공평과세 실현에 기여하고 있는 바,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몽호/기자



사이소

검색창에 '사이소' 물을 검색하세요

H.O.T 페스티벌 2020

버블

매년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영양 핫 페스티벌'이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당해는 온라인 축제로 진행합니다

판매기간 9월 14일 ~ 10월 14일  
판매처 사이소 www.cys.co.kr  
문의전화 054-683-7300

# 비대면 임용식에서 쏟아진 새내기 안산시 공직자의 당찬 포부... '성황리 마무리'

## 윤화섭 시장 "공무원의 덕목은 '친절함'...신규 공무원 역할 중요"

안산시가 전국 최초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한 신규 공무원 임용식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개그맨 이문재의 재치 넘치는 사회 속에 진행된 '새내기 공직자 토크콘서트'에서는 최고령 합격자가 역경을 딛고 공직에 합격한 소감을 전하며 큰 관심을 받았으며 많은 신규 공직자가 직접 포부를 밝히며 각오를 다졌다. 15일 오전 안산 문화예술의전당 달맞이극장에서 열린 '2020년 신규 공무원 임용장 수여식'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예방을 위해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됐다.

전체 신규 공무원 139명 가운데 대표로 10명만 참석해 임용장 수여식 및 공무원 선서가 진행됐고 나머지 129명은 화상회의 플랫폼 '줌'을 통해 이를 지켜봤다. 모든 신규 공무원이 임용장을 받던 예년 행사와 달리 비대면으로 진행된 올해 임용식에서는 토크콘서트가 색다른 매력을 뽐냈다. 윤화섭 시장은 많은 신규 공

무원과 직접 대화를 나누며 앞으로의 미래를 응원했고 공직자들도 직접 포부를 밝혔다. 1966년생으로 최고령 합격자인 반은환 씨는 "50대 초반에 건강 문제로 회사를 그만두게 됐는데, 장애를 편견 없이 대우하는 공무원 시험에 도전해 나름 열심히 공부해 합격하게 됐다"며 "합격 소식을 듣고 가족들이 굉장히 기뻐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좋은 선배들과 함께 열심히 일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최연소 합격자인 김창화 씨는 "어린 나이에 합격한 만큼, 앞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다른 분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산시민이 불편을 겪지 않게 앞으로 맡게 될 업무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윤화섭 시장은 포부와 함께 새내기 공무원들이 제안한 정책에 대해서도 직접 청취하며 시정에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



윤화섭 시장은 "공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중요한 덕목 중 하나는 시민에 대한 친절함"이라며 "안산시가 더 살기 좋은 도시, 안전한 도시가 되기 위해 신규 공무원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하며 앞으로의 공직생활을 응원했다. 최정부/기자

# 송파책박물관, '서울특별시 건축상' 최우수상 수상

## 세대 간, 지역공동체 간 소통 강조 호평

송파구는 국내 최초의 공립 책박물관인 송파책박물관이 10월 16일 오후 3시, 정동1928 이벤트홀에서 열리는 '제38회 서울특별시 건축상'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건축상'은 건축의 공공적, 예술적, 기술적 가치를 구현하며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킨 우수한 건축물과 건축 관계자를 시상하는 서울시 건축분야 최고 권위의 상이다. 최우수상에 선정된 송파책박물관은 2019년 4월 23일 우리나라 공립박물관 중 처음으로 책을 주제로 건립됐다. 장서 1만3천287권과 책 관련 유물 8천804점을 소장 품으로 보유하고 있다. 이번 시상식에서 송파책박물관은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 내 위치하며 학교, 공원과 더불어 하나 된 도시풍경으로 세

대간, 지역 공동체 간 소통을 강조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 됐다.

또한, 외관에 폭이 좁은 판을 일정하게 배열하는 버티컬 루버 방식을 적용해 책장의 책을 패턴화 한 모습이 시간과 위치에 따라 다양한 디자인을 보여준 점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송파책박물관과 더불어 대상에 클리오 사옥, 최우수상에 중립창고 등 5점, 우수상에 국립항공박물관 등 14점이 선정됐다. 수상자에게는 서울특별시 표창이, 건축주에게는 기념동판이 수여된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송파책박물관이 독서의 즐거움을 넘어 건축예술의 가치를 알리는 공간으로 인정받아 매우 기쁘다"며 "더 아름답게 꾸고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



발에도 힘써서 송파를 넘어 서울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공간의 모범이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황규식/기자

# 서대문구 전통시장 따라 '나혼자 걷기' 챌린지 진행

## 기존 '안산 스마트 둘레길'에다 전통시장 연계해 코스 구성

서대문구가 구민 건강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달 19일부터 25일까지 '가을맞이 전통시장 따라 나 혼자 걷기' 챌린지를 진행한다.

걷기 시간은 구가 2017년 조성한 '안산 스마트 둘레길'에다 관내 전통시장들을 연계해 구성했다.

거리는 약 8km로 포방터시장~홍제유연~인왕시장~유진상가~홍제천 폭포마당~안산 벚꽃마당~숲속무대~능안정~독립문공원~영천시장으로 이어진다. 걷다 보면 전통시장 내 점포와 인근 착한가격업소 부근을 지나게 된다. 챌린지 달성을 위한 시간제한은 없지만 성인 걸음으로 약 2시간 30분 정도 소요된다. 참

여 희망자는 스마트폰에서 '워크온' 애플리케이션을 설치, 실행한 뒤, 기간 내에 지정된 코스를 걸으면 된다. 구는 이 구간의 80% 이상 걸은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이달 28일 이후 추첨을 진행하고 선정되는 200명에게 5천 원권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을 증정한다. 앞서 서대문구는 2017년 전국 최초로 사물 인터넷을 활용한 '스마트 둘레길'을 조성했다.

특히 올 들어서는 구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면서도 참여할 수 있는 걷기 챌린지를 7회 진행해 연인원 만여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얻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많은 분들이 나 혼자 걷기 챌린지 참여를 통해 가을을 느끼고 정신적 신체적 건강 회복력도 높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상순/기자

# 은평 구석구석에서 발견하는 예술보석, '예술시장 다다' 개최

## 은평 곳곳에서 만나는 예술시장 10.13.~11.6까지

은평문화재단이 주최·주관하는 '예술시장 다다'가 지난 10월 13일부터 오는 11월 6일까지 총 25일간 개최된다. 올해 처음으로 시작되는 이번 행사는 여타의 아트마켓과 차별화해 연신내, 응암 등 은평 곳곳에서 예술가의 창작품을 다채롭게 선보인다. 예술시장 다다는 은평구를 기반으로 지역과 공간, 예술가를 연결하는 독립예술시장으로 공간과 예술가를 매칭해 공식 SNS 온라인 채널과 각 오프라인 공간에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예술시장 다다에 참여하는 은평 지역 내 일상 공간에서 전시를 감상하고 전시된 작품과 관련 아트상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예술가의 지속적인 창작활동을 후원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판매 수익금 전액은 해당 예술가에게 지원된다. 이번 행사에는 총 14곳의 공간과 총 25팀의 작가가 참여해 각기 다른 25개의 특별한 전시를 이어나간다.

10월 13일부터 11월 6일 중 각 공간별 전시기간이 상이하게 진행되며 이 기간 동안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다. 또한 온오프라인으로 배포된 통합 리플렛에 표시된 지도를 따라 숨겨진 보석을

찾듯 14개 공간, 25팀 작가의 전시를 찾아볼 수 있다. 주최측은 "재래해 잘 다듬어진 광물이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이 되는 것처럼, 지역의 숨은 공간과 예술가를 발굴해 그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길 바란다"며 "지역 주민들이 멀리 미술관까지 가지 않아도 평소 친숙한 일상 공간에서 예술가의 작품을 접하고 구매·소장할 수 있는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조상순/기자



# 강북구, 2020 한신대 캠퍼스타운 페스티벌 '가든 토크쇼' 개최

## 10월 17일 오후1시 한신대학교에서 코로나19로 야기된 지역현안 해결 방안 등 토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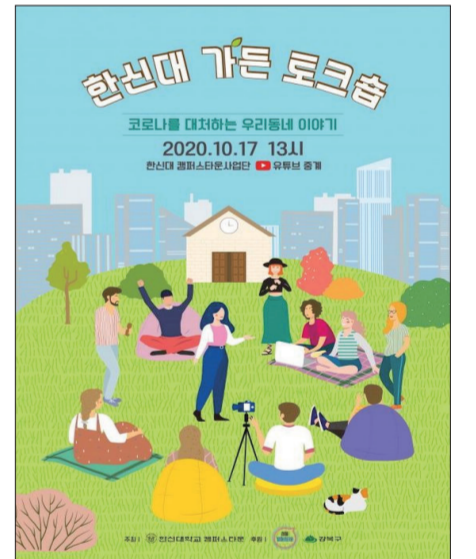
강북구가 한신대학교 캠퍼스타운 사업단 주관으로 10월 17일 오후 1시 한신대학교 신대학원에서 '가든 토크쇼'를 개최한다. 토크쇼+워크숍의 합성인 '토크숍'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변화된 삶과 이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일자리, 창업 분야에서의 필요 자원 공유 등 지역 발전을 위한 방법을 논의하는 자리다. 대상은 주민과 지역 내 예비창업인이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유튜브 채널 '한신대학교 캠퍼스타운사업단'을 통해 실시간 중계된다.

나중이어나온서의 진행으로 사업단 이기호 단장, 이용균 강북구의회의장, 김혜신 강북마을 운영위원, 이재경 사업단 연구원과 지역청년 대표인 박글라라 씨가 패널로 나서 코로나19 대응법 및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토의한다. 내용은 사업단의 차년도 사업에 반영될 방침이다.

행사에서는 유튜브를 통해 주민들로부터 질의를 받고 응답하는 자

리도 가질 예정이다. 또한 토론을 전후해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공연도 함께 펼쳐진다. 박경수 강북구청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각 분야의 대표들이 만나 함께 코로나19로 야기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토의 내용을 잘 활용해 지역의 밝은 미래를 모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국민건강보험 40주년

**국민건강보험이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을 위한 작은실천~**

# 건강검진

**일반건강검진**

직장가입자, 지역세대주, 만40세이상 지역세대원 및 직장피부양자, 만19세~만64세 의료급여 세대주, 만 41세~만64세 의료급여세대원  
※ 검진주기 : 2년에 1회(직장가입자 비사무직 1년에 1회)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만40세와 만66세에 해당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연령별 맞춤형사 (B형간염검사, 골밀도 검사, 정신건강검사 등)와 생활습관 평가 등 의사상담을 실시

**암검진**

- 대상자 : 출생연도에 따라 암종별 연령 및 검진주기에 해당하는 자

- 위암 (만 40세이상, 2년주기)
- 자궁경부암 (만 20세이상 여성, 2년주기)
- 유방암 (만 40세이상 여성, 2년주기)
- 간암 (만 40세이상 고위험군, 6개월주기)
- 대장암 (만 50세이상, 1년주기)

**영유아검진**

생후 4개월부터~7개월까지의 영유아

**국가 건강검진 활용 안내**

「민원24」(www.minwon.go.kr) 생활정보 서비스 제공  
-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관련 생활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 건강검진으로 운전면허 신체검사 면제**

- 운전면허 신청일 이전 2년 이내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 발급·갱신 신체검사(시력·청력) 면제가 가능합니다. (단, 검진기관에서 공단에 검진결과를 접수완료한 건에 한함)

- 신청방법 :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하여 정보이용 동의서 작성하거나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운전면허 적성검사 인터넷 신청 시 가능

- 대상면허 : 1종 보통면허, 2종 운전면허

**학교밖 청소년 건강검진 안내**

검진대상 : 9세이상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 19세~24세는 다른 국가검진과 중복 불가

검사항목 : (기본검사) 소변검사, 혈액검사, B형간염검사, C형간염검사, 구강검사  
(추가검사) 매독혈청반응검사, HIV항체검사, 자궁경부세포검사

학교밖 청소년 검진관련 문의  
(유선전화 : 1388, 핸드폰 : 지역번호+1388)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콜센터 129



h-well 국민건강보험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고객센터 1577-1000



검진기관안내

# 온라인으로 방문하는 만해 한용운의 심우장

서울 성북구-코리아헤리티지센터, '심우 아뜰리에 - 심심心心풀이전' 진행



서울 성북구와 코리아헤리티지센터가 손잡고 만해 한용운 심우장을 활용한 '심우 아뜰리에 - 심심心心풀이전'을 진행하고 있다.

'심우 아뜰리에 - 심심心心풀이전'은 문화재단이 후원하는 2020년 생생문화재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했으며 심우장이 지난 2019년 국가 지정 문화재인 사적으로 지정된 후 첫 번째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심우장은 만해 한용운이 1933년부터 1944년까지 거주했던 곳으로 만해가 조선총독부와 마주보게 되는 남향을 거부하고 북향으로 집을 지었다는 이야기가 유명하다. '심우'이라는 이름은 깨우침을 찾아 수행하는 과정을 소를 찾는 일에 비유한 불교 설화에서 따온 것이다.

'심우 아뜰리에 - 심심心心풀이전'은 심우장에 거주했던 만해 한용운, 독립운동, 근대 성북동과 문화예술 이야기 등의 다채로운 이야기에 중심으로 성북의 주요 문화재인 심우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했으며 10월부터 유튜브 '코리아헤리

티지센터' 계정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첫 번째 프로그램인 '심심心心풀이전'은 근대 문화재 심우장의 이야기와 성북구의 역사, 문화를 담은 특별한 영상을 통해 성북구의 중요 문화재인 심우장과 성북구 지역의 역사, 성북구 지역의 근대 문화예술을 장소와 상관없이 누구나 향유할 수 있도록 기획된 비대면 특별영상 기획전이다.

두 번째 프로그램인 '심우장 History 입을 그리다'는 심우장과 만해 한용운의 삶, 그리고 그의 작품인 '님의 침묵'을 통해 당시 시대 상황과 문화재의 역사를 영상 통

해 배우고 체험키트를 통한 치유미술 체험을 해볼 수 있는 비대면 문화재 향유 체험프로그램이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최근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을 지키기 위해 온 국민이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있는 가운데 독립운동과 문학을 통해 세계 평화를 강조했던 한용운 선생의 정신이 더욱 특별하게 와 닿을 것"이라며 "만해 선생의 정신과 활동을 장소와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한 만큼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김현일/기자

# 부평구, '심정완충녹지' 애칭공모 투표 실시

부평구가 19일부터 26일까지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심정완충녹지 애칭공모 투표'를 진행한다. 투표대상은 지난 공모를 통해 접수된 196개 응모작 중 부평비전 2020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된 15개 애칭으로 참가자들은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1회 투표 가능하다.

심정동 224-6번지 일원에 위치한 심정완충녹지는 고물상과 무허가 공장난립해 도시 미관을 해쳤던 지역이다. 녹지 조성사업을 시작한 지 24년 만에 마지막 결실을 앞둔 것이다. 심정완충녹지는 7만6천73㎡ 규모로 산업단지와 주택단지 중간에 자리 잡고 있다. 1996년 녹지 조성사업 초기만 해도 도시 미관을 저해하던 애물단지였다.

구는 주민들의 쾌적한 삶을 위해 완충녹지 조성을 추진했지만 과정은 쉽지 않았다.

사업 추진 2년여 만인 1998년 2만여㎡ 면적에 대한 심정녹지 1단계 조성사업을 완료했지만, 예산 마련 등의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다가 2007년과 2009년 각각 2단계와 3단계 조성을 마무리했다. 이후 10여년이 흐른 지난해 6월 심정녹지 4단계 조성공사를 끝내고 올해 2월 마지막



5단계 조성공사를 시작해 오는 11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해당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총 483억8천800만원이다. 시비와 구비가 각각 절반씩 투입됐다.

구는 오랜 시간 동안 적지 않은 예산이 든 녹지 공간인 만큼 주민들에게 친근감을 주고 사람과 자연, 문화와 역사가 공존하는 부평에 걸맞은

애칭을 마련하고자 공모를 추진하게 됐다. 애칭 투표는 지역 제한 없이 관심 있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투표 가능하다. 차준택 구정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주민들이 친근하고 쉽게 부를 수 있는 좋은 애칭이 선정되길 바란다"며 "많은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변재현/기자

## 도봉구, 비대면 출산·육아용품 나눔장터. 20일 21일 개최

도봉구가 오는 20일부터 21일 양일간 도봉맘들을 위한 출산·육아용품 나눔장터를 연다. 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도봉구 출산·양육 친화분위기 조성을 위해 출산·육아용품 나눔장터를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도봉맘 출산·육아용품 나눔장터는 도봉구청 지하 1층 아뜨리움에서 열린다. 판매품목은 세상품 및 재활용이 가능한 임신 및 출산 육아용품이다. 판매자는 사전에 모집했다. 유모차, 세발자전거, 아기띠, 카시트 등의 육아용품이 모였으며 이 외에도 장난감, 아기리유, 이불 등 다양한 물품이 판매될 예정이다. 행사 당일 나눔장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판매자 대신 구청 직원 2명이 판매를 대행한다. 구매자는 인터넷 사전신청을 받고 있으며 당일 현장접수도 가능하다. 10월 16일까지 도봉구청 홈페이지 '참여→인터넷접수/설문'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여성가족과로 문의하면 된다. 구매자는 동시시간대에 2명으로 입장을 제한한다. 또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나눔 장터 입장 시에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고 손소독제 사용 및 일회용 장갑을 착용 후 입장이 가능하다. 또한 진열된 물품에는 주기적으로 살균소독제를 사용해 소독할 예정이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온라인 베품시장과 차별화해, 비대면으로 다양한 출산·육아 물품을 실제로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는 오프라인 직거래 장터를 개최하게 됐다"며 "도봉맘 출산·육아용품 비대면 나눔장터 시행으로 코로나19로 침체된 사회분위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동시에 자원의 선순환 또한 이룰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2020 도봉맘 출산·육아용품 비대면 나눔장터 참여자 모집**

우리 아이에게 더 이상 필요는 없지만 버려야 하는 물건

구매 희망자만 신청 가능

구매 가능 품목: 유모차, 세발자전거, 아기띠, 카시트 등 육아용품

모집기간: 2020.10.20(화)~10.21(수) | 장소: 도봉구청 지하1층 아뜨리움

신청방법: 구청 홈페이지 '참여→인터넷접수/설문'에 접속해 신청

신청시간: 2020.10.20(화)~10.21(수) | 신청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신청인원: 1인당 2명

신청방법: 구청 홈페이지 '참여→인터넷접수/설문'에 접속해 신청

문의: 도봉구청 여성가족과 ☎ 02-2091-3142

## 유천호 강화군수, 세계자유민주연맹 국제자유장 수상

###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지역발전 헌신 공로

유천호 강화군수가 16일 세계자유민주연맹 포상인 '자유장'을 수상했다. 유천호 군수는 16일 군청 군수실에서 야오잉지 세계자유민주연맹 총재를 대신해 이경태 한국자유총연맹 인턴총재가 수여하는 '자유장'을 수상했다. 유 군수는 청소년 평화통일준비 민주시민교육, 나라사랑 태극기달기 운동,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인상, 각종 보훈단체 지원, 북한이탈주민사업 지원,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위령제 개최 등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세계평화에 앞장섰다. 또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공영주차장, 생활밀착형 도심 속

공원과 '강화나들길 민통선 안보관광코스' 등을 활발히 조성하고 아프리카페지일병과 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지역발전 관련 공로를 인정받아 자유장 수상자로 선정됐다. 유천호 군수는 "호국영령과 선배들이 지켜낸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는 새삼 설명할 필요가 없는 중요한 가치"며 "최근 세계적으로 자유민주주의가 적잖은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군민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 700여명의 공직자와 함께 노력한 결과로 이 상을 받게 되니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강화군 발전과 군민의 행복, 복지증진 등의 노력을 통해 우리 강화군민들 모두의 진정한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종남/기자



## 김상돈 의왕시장, 24번째 생활밀착형 현장행정 진행



### 포일 근린공원, 청계산 누리길, 레슬레파크 여가편의시설 현장 점검 실시

김상돈 의왕시장은 지난 15일 '제24차 현장행정의 날'을 맞아 시민들의 여가편의시설인 공원과 등산로 등 주요사업 현장을 찾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김상돈 시장은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포일동 한국농어촌공사 이전부지 특별계획구역에 조성되고 있는 포일 근린공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진행 중

정원문화박물관 관련 레슬레파크 공모지원 사업현장을 방문해 현장을 살폈다. 현장점검을 마친 김상돈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시민들의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만큼 시민들에게 재미있는 볼거리와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여가편의시설인 공원과 등산로 등의 조성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당초 10월 개최 예정이었던 제8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가 코로나19로 내년 상반기로 연기됨에 따라 박람회 관련 시설관리에도 각별히 신경 쓸 것"을 당부했다.

박상찬/기자



# 의정부역 스카이라인

### 영덕군 오징어 순풍



동해안 오징어 어획량이 증가한 가운데, 영덕군 오징어 역시 순풍을 타고 있다.

16일 영덕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말까지 총 1천568톤의 오징어가 잡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1천500톤보다 소폭 증가했다. 8월부터 10월까지가 주 어획기임을 감안하면 올해 어획량은 2천톤을 넘어 2016년 2천300톤까지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민들 역시 오징어 어획량 증가를 체감하고 있다.

15일 축산항에서 수산업을 하는 한 상인은 "지난해에는 오징어가 많이

잡히지 않았지만 올해는 확실히 많이 잡힌다. 올해 말까지 조업을 하면, 지난해보다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축산항은 영덕군 대표 오징어 위판장으로 영덕군 전체 오징어 생산량의 80%를 책임지고 있다.

그동안 영덕군 오징어는 매년 감소해왔다. 지난 2015년 1만222톤이 잡혀 정점을 찍은 뒤 계속 줄어 2017년엔 1천146톤으로 가장 적었으며 지난해에는 총 1천904톤이 잡혔다. 오징어 어획량이 올해 늘어난 배경은 두 가지다. 오징어가 살기 좋은 바다 환경이 조성됐으며 또, 중국

어선의 남획이 줄었기 때문이다.

영덕군 관계자는 "현재 영덕군 연안 수온이 19.2도로 전년보다 2.2도 낮게 형성돼 오징어 어군이 빠르게 남해해 가을철 어획량이 늘었다. 또, 동해바다 전체로 볼 때 중국 어선의 남획이 준 것도 한 몫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어획량이 안정을 보이자 오징어 가격 역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0월 오징어 1척 거래가는 7만원이었다. 하지만 올해 10월 초 기준으로 6만4천원에서 6만5천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남궁영기기자

### 김천시 부항댐 사면 국화꽃 단장, 가을정취 물씬

#### 댐 사면 초화류 식재 관리로 특색 있는 자연경관 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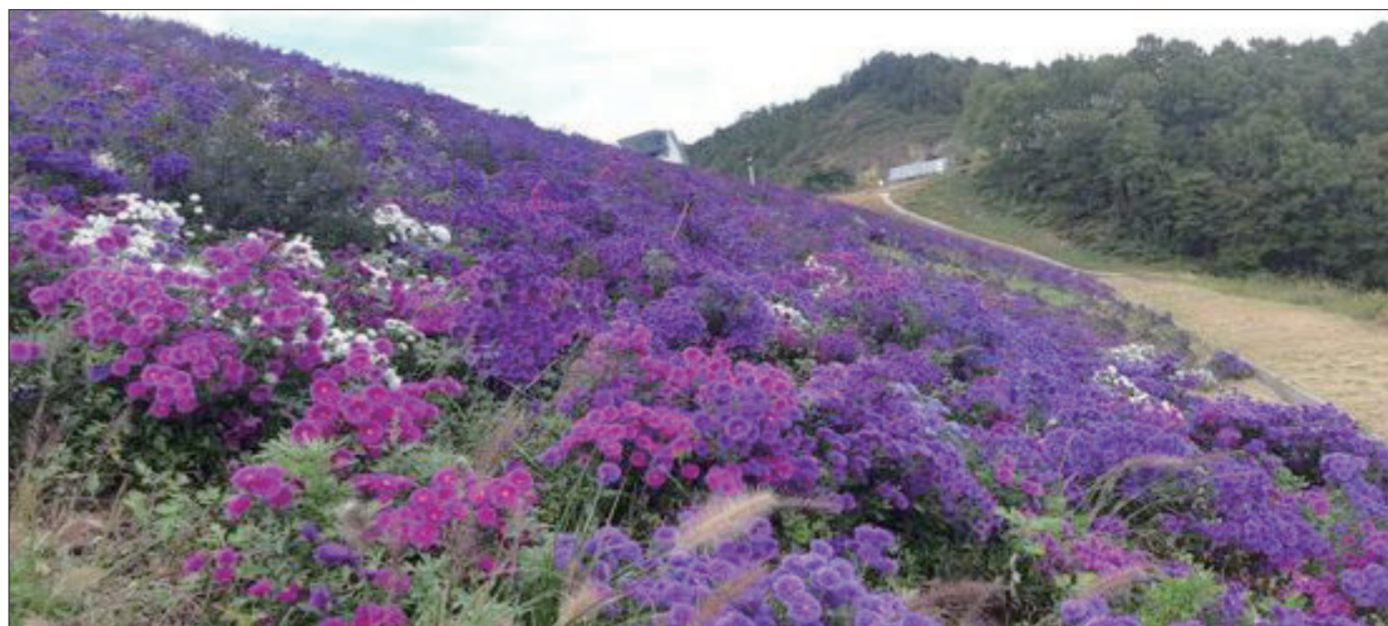
김천시는 부항댐 일원 쾌적한 경관 실현을 위해 2019년도부터 K-water 김천부항지사과 협약을 체결하고 효율적인 부항댐 사면 및 주변 가로환경 개선을 위해 공원 녹지 공간을 유지 관리해 오고 있다.

작년부터 부항댐 사면적 24,000㎡에 숙근아스타 20여 만본을 식재하고 제초, 예초, 비료주기, 적심 및 관

수작업 등 초화류에 대해 유지 관리해 오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댐 사면 중간부분에 하트 및 물결모양으로 금방울꽃 2만 5천본을 포인트 식재했다. 댐 사면 특성상 토심이 얇고 법면녹화 작업이 되어 있어 생육조건이 불리한 상황에서도 기존 하층식생과 더불어 지속적인 초화류 생육 집중관리로 10월 중순 이후부터 금방울 꽃이 만개해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할 예정이다. 이번 부항댐 배면 국화꽃 개화와 함께 한국수자원공사 부항지사의 협조를 받아 댐 사면을

가로지르는 도로를 꽃이 질 때까지 임시개방하기로 했으며 레인보우 쥘와이어 스카이워크, 출렁다리, 산내들공원, 오토캠핑장 및 수변둘레길 등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연인, 가족 단위 나들이객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국화꽃과 함께 부항댐 가을바람을 맞으며 심신의 안정과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며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하며 안전한 가을여행을 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인용기자



### 영천의 체육을 빛내리~

#### 전국대회 입상자 격려 및 탁구 유망주 장학금 후원

영천시는 지난 15일 시장실에서 최근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옥시원, 임형윤, 이재웅 선수들을 초청해 그간의 노력에 대해서 격려했다. 영동중학교 2학년 옥시원 선수는 지난 8월 충남 청양군민체육관에서 열린 제50회 대통령배 전국복싱대회에 출전해 -57kg급 은메달을 획득했고 영동고등학교 3학년 임형윤 선수는 제48회 KBS배 전국육상경기대회 3000M 장애물달리기에서 3위를 기록했다. 특히 영동고등학교 3학년 이재웅 선수는 지난 7월 예천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제48회 KBS배 전국육상경기대회에 출전해 1500M, 5000M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8월 평창에서 개최한 2020 평창대관령전국고교 10km마라톤대회에 출전해 개인 남자부 1위를 기록했다. 또한, 같은 날 영천시체육회 부회장인 썬지엔에스 이구형 대표의 탁



구 유망주 이다경 선수에 대한 장학금 후원이 있었다. 영천여자고등학교 2학년 이다경 선수는 제51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남여학생종별탁구대회 개인단식 1위 등 우수한 입상 경력을 가져 영천시를 빛낼 체육 유망주로 월 30만원씩 고등학교

졸업까지 총 51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최기문 시장은 "영천시를 빛낸 선수들이 자랑스럽고 앞으로도 많은 대회에서 입상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며 "영천시의 체육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시 감사하다"고 전했다.

한반식기자

### 김천시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총력

#### 멧돼지, 고라니 농작물 피해신고 80% 감소

김천시의 가을철 수확기 농작물피해 신고가 전년 대비 80%이상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매년 복숭아와 자두 등 여름과일 피해신고와 가을 수확기 농작물 피해를 호소하는 농민들의 호소가 이어졌으나, 올해는 피해신고 건수가 대폭 줄어들어 야생동물 피해방지를 위한 당국의 노력결과가 주요 요인으로 보인다.

현재 김천시는 농작물의 피해예방을 위해 유해조수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상시포획단 운영, 포획사체 랜딩 처리,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보상 등 많은 사업을 추진하며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김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시포획단은 총기소지면허와 수렵면허가 있는 모범업사 총42명으로 4개 권역으로 나누어 포획활동을 하고 있다.

포획에 앞서 포획방향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포획활동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총기 안전사고예방, 인가 및 가축사육 지역 주변 발포금지, 유해야생동물 상황별 행동요령과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 단속 등의 내용을 숙지한 후 포획활동에 들어간다. 특히 포획 포상금으로 멧돼지1마리당 5만원, 고라니 1마리당 3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작년 말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되어 환경부에서 멧돼지 1마리당 20만원의 포상금을 추가 지급해 전년도보다 150%이상 포획 올해 9월말까지 멧돼지 1,309마리, 고라니 1,672마리를 잡아 농작물 피해예방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상시포획단이 포획한 유해야생동물 멧돼지, 고라니는 올해부터 랜딩처리 방식으로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다. 랜딩 처리는 사체를 분쇄

한 후 130℃ 이상의 고온에서 2시간 이상 고압 처리하는 기술로 부산물도 농업용 식용유나 퇴비로 재활용되는 친환경적인 처리방식으로 지난 2월부터 렌더링 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다. 예전에는 자가소비 방식으로 보양식품 재료로 둔갑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불법매입에 의한 도양오염, 세균번식 등 오염요인이 되어왔으나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멧돼지 사체의 자가소비가 금지되고 가장 많이 잡히는 고라니는 현장매립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 매립이 어려운 흑한기나 운반이 어려울 경우 포획장소에 방치하는 등 문제를 키워왔다. 현재는 냉동 창고를 구입해 즉시 보관 및 처리, 사체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 렌더링 업체 사체처리 계약 등을 추진해 멧돼지, 고라니 사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다. 또한 산림연접 농경지의 농작물을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피해예방시설인 철망울타리, 전기충격식 목책기 등의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철망울타리 등 설치계획 면적 995㎡ 이상, 설치거리 130m이상으로 5년 이상 연작 가능한 소유자, 자부담 능력이 있고 농림부 FTA기금 등의 피해예방시설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는 관내 농·임업인이다. 올해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심각하다는 여론을 반영해 자체 사업비 1억 8천만 원을 추가로 편성, 전체 사업비 4억 4백만원의 예산으로 농가당 최대 300만원까지 총 231농가에 지원했다.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은 매년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과수 및 특용작물 재배지, 반달가슴곰 서식지 조성으로 유해야생동물 포획이 제한된 수도산 인근 증산면, 대덕면 농가에 우선 지원하고 있다. 기존에 사용중인 멧돼지 포획틀은 무게가 150 ~ 200kg 정도로 설치에

어려움이 있어 무게가 가볍고 이동설치가 용이하며 지뢰처럼 땅속에 매립해서 야생동물이 밟는 순간 발목을 채우는 방식이다. 또 포획 시 설치자의 휴대폰으로 생포사실이 즉시 전송되는 최첨단 시스템을 이용해 피해신고나 평소 피해가 많은 민가, 축사 주변 등 총기사용이 어려운 지역에 포획용 GPS 생포트랩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야생동물 피해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 있다. 최근 벌, 뱀, 멧돼지 등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일상생활 중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발생 시 병원 치료비와 사망위로금 보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야생동물로 인한 신체상 피해를 당해 병원치료를 받은 김천시민은 피해발생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보상내용을 보면 피해자의 치료비 중 실제 본인 부담금을 말하며 1인당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되며 치료 중 사망할 경우 치료비 및 사망위로금을 포함 최고 600만원까지 지급된다. 다만, 참진드기가 매개하는 중증열성 소관감소증후군, 바이러스질환, 로드킬 사고 등 야생동물로 인한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가 아닌 경우, 등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김충섭 시장은 "일년 동안 피해를 당하며 애써 가꾼 농작물이 멧돼지 고라니로 인해 하루아침에 파헤쳐진 모습을 보는 농민들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각종사업을 확대한 결과 피해가 많이 줄었지만 향후에도 사업확대를 통해서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포획에 노력이 많은 포획단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농민들을 위해 많은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고 철망울타리도 많이 지원해서 농민들의 마음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송인용기자



### 안동시 옥동, 마을복지계획 추진단 발대식 개최



#### 주민들과 함께 성장하는 옥동 '마을살이·마을하기' 기대

안동시 옥동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5일 '주민이 만들어 가는 옥동, 마을살이·마을하기' 추진을 위한 마을복지계획추진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위촉장을 전달했다. 이번 발대식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참석 인원을 나눠 2회에 걸쳐 개최했다.

마을복지계획 추진단에는 공개모집으로 모인 신청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해 총 50명이 최종 선발

됐으며 30대에서 80대까지 다양한 계층과 직종을 가진 주민들이 두루 포함됐다. 이날 구성된 추진단은 향후 공공과 민간의 협력과 연대를 위한 마을 리더 역할을 수행하며 마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속적인 주민 의견수렴을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주민이 만들어 가는 마을 복지를 실현해 나갈 예정이다. 발대식 후에는 '마을복지의 이해'라는 주제로 안동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김현숙 사무국장의 교육이 진행됐으며 마을복지에서의 주민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기

회가 됐다. 박무주 추진단장은 "마을복지계획은 첫 시도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옥동이 갖고 있는 마을특성과 장점을 잘 살리고 주민 간 소통과 공론의 장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계획의 주체로서 참여하면서 주민의식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의한 옥동장은 "주민들이 복지과제에 관심을 갖고 열정적으로 참여할 때 마을복지가 살아날 것으로 본다"며 "오늘 발대식을 계기로 주민과 마을이 함께 성장해 나가기 바란다"고 전했다.

김영호기자



# 창원시, 가을철 낚시객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개최

진해 명동 선착장-마산 광암 방파제서 안전수칙 준수 홍보

창원시는 16일 진해 명동 선착장 및 마산 광암 방파제 일대에서 낚시객과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했다고 밝혔다.가을철 등산과 낚시 등 야외활동 증가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번 캠페인에는 안전보안관 및 해상안전보안관 30명이 참석했다.이들은 낚시객 및 낚시어선 대상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홍보 해양안전사고 예방 및 쓰레기투기 방지 홍보 코로나19 위해요소 안전신문고 앱 활용 신고 등 가을철 안전사고 예방수칙 홍보 및 계도활동을 펼쳤다.

안전보안관과 해상안전보안관 등 자원봉사자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2인1조씩 현수막과 어깨띠를 착용해 선착장과 방파제 일대를 순회하며 홍보했다.

낚시객들에게 안전수칙 전단지 및 홍보물품 배부를 통해 방역수칙의



가장 기본은 마스크 쓰기 입을 강조했다.공철배 시민안전과장은 "사회적거리두기가 1단계로 낮춰지긴 했지만 바닷가는 항상 위험요소가 많아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어선

에서 다수의 지역 감염자가 발생될 수 있어 코로나19 방역·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봉호/기자

# 가을향기 듬뿍 품에 안은 밀양강



## 가을의 전령인 코스모스로 밀양강 둔치를 물들이다

그에 맞춰 코스모스도 꽃망울을 터뜨렸다.

풍성하고 아름다운 가을의 향연을 본 시민들은 걸음을 멈추고 사진을 찍으며 완연한 가을을 즐긴다.밀양시는 밀양강 둔치 내 18,000㎡ 규모에 코스모스 단지 2개소를 조성했다고 15일 전했다.

불볕더위와 연이은 태풍으로 인한 침수 속에서도 쓰레기를 치우고 씨를 뿌리고 잡초를 제거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온 결과 현재 밀양강

둔치는 코스모스가 만발해 가을의 정취를 물씬 풍기고 있다.

활짝 핀 코스모스 단지 옆으로는 붉게 식재된 사루비아와 같은 즐거움에 보는 즐거움까지 더해주고 코스모스 단지 옆에 심은 가우라와 사계절패랭이 꽃단지는 지나가는 시민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발걸음을 멈추게 만든다.삼문동 송림 아래 구절초 단지에서도 가을의 향기를 맡을 수 있다.

구절초는 국화과의 다년생 식물로 가을에 피는 대표적인 야생화다.

소나무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 아래 하얗게 핀 구절초의 영롱한 모습은 연인과 가족들의 사진 명소로 유

명세를 더하고 있다.

밀양시는 둔치를 이용하는 시민들과 방문객에게 수준 높은 녹지공간을 제공하고 꽃과 나무가 어우러진 도심 속 정원으로 조성해 더욱 아름다운 밀양의 이미지를 제공하고자 밀양강 둔치 정원과 사업을 시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장미원 확장과 꽃단지 조성, 영남루 주변 녹지대 정비 등 밀양강 둔치 정원과 사업이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관리 및 사업시행으로 보다 수준 높은 녹지공간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호/기자

# 부산시, 인공지능 면접 공략법 및 체험 무료교육

부산지역 취업준비생을 위한 비대면 면접 강화

부산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사회에서 변화하는 채용방식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비대면 화상 인공지능 면접 공략법 및 체험교육'을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무료로 진행한다.시는 코로나 19로 인해 일상생활이 비대면화되면서 취업을 준비하는 부산지역 취업준비생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준비했다.비대면 면접 및 채용방식의 변화를 이해하고 비대면 면접 단계별 전략 및 스피치 스킬, AI필수 질문 및 유형 분석, 답변 노하우, 개인별 AI 면접 진행 및 피드백까지 비대면 면접에 꼭 필요한 내용으로 부산시 디지털배움터의 특별과정으로 교육을 구성했다.

교육과정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채용 면접, 비대면 면접 대응 전략, AI 면접 대응 전략, 설문 AI 면접 체험 등으로 구성되며 비대면 화상교육으로 진행된다.

참가 신청은 10월 16일 마감되며 정원은 80명이다.교육은 신청 사이트를 참고해 교육생 신청-희망교육과정-디지털특별을 신청하면 된다.

또한,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 홈페이지와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취업완전정복! AI면접 공략법 및 체험교육**

취업을 준비하는 부산지역 취업준비생을 위한 '비대면 시대 비대면 면접 강화'를 위한 '특수' 교육

교육일정 | 2020. 10. 19 (월) ~ 10.21 (수)  
신청기간 | 2020. 10. 12 (월) ~ 10.16 (금)  
신청방법 | <http://eduhelp.ktcs.co.kr/busan>  
교육생 신청-희망교육과정-디지털특별(AI면접공략법과 설문) 신청

교육과정	내용
1. 포스트 코로나 시대 채용 면접	비대면 면접 이해 및 채용방식의 변화 이해 비대면 면접 단계별 전략 및 비대면 면접 환경
2. 비대면 면접 대응 전략	비대면 면접 Propermanner, 비대면 면접 스피치 스킬
3. AI면접 대응 전략	AI면접 구조 및 프로세스, AI 필수 질문 및 유형 분석 및 노하우
4. 설문 AI 면접 체험	개인 별 AI 면접 진행 및 피드백

본 교육은 비대면 화상교육으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교육 시간 및 내용은 교육 신청 사이트를 참고주세요.

교육지원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IA 한국장보화진흥원, 부산광역시

관련 문의: 1800-0096

비대면 화상 교육은 인터넷이 가능한 장소에서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참여하면 된다.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부산지역 취업준비생에 언택트 시대 비대면 면접 강화를 위한 좋은 계

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유연하고 창의적인 디지털배움터 교육과정을 많이 마련해 시민 디지털 역량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궁영기/기자

# 거제시 치매안심센터 '인지강화 두뇌밀키트사업' 실시

거제시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10월 5일 부터 오는 11월까지 2개월 간 경증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인지강화 두뇌밀키트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집단 대면 프로그램 운영이 제한됨에 따라 주식회사 함께하는 다이아웃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운영 중인 '찾아가는 인지재활프로그램'에 활용 가능한 인지강화 두뇌밀키트를 개발했다.인지강화 두뇌밀키트는 프로그램 대상자에게 주 1회, 총 4가지 메뉴로 간편조리가 가능한 구성으로 제공되며 치매안심센터 치매파트너가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치매어르신과 같이 직접 조리해 참여함으로써 인지능력 및 일상생활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더불어 코로나19 유행으로 외출이 제한적이고 식당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치매어르신에게 거제로컬 푸드를 활용한 신선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한다.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은 "코로나 19로 경로당 이용이 어렵고 장보기가 힘들어 식사 문제에 애로가 많았는데 신선한 재료



로 직접 함께 요리를 하니 너무 좋고 예전 생각도 많이 난다"고 소감을 전했다.거제시 치매안심센터 정기만 센터장은 "인지강화 두뇌밀키트는 치매어르신에게 필요한 인지강화프로그램 도구로 활용되며 건강한 먹거

리를 제공해 식사문제해결에도 효과적"이라며 "앞으로 장기적인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치매어르신들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송인용/기자

**지속 가능한 청정에너지 개발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일**

**한국수력원자력이 앞장서겠습니다**

**대한민국 에너지를 이끌어왔습니다 내일의 에너지를 주도해가겠습니다**

- 무한한 태양빛을 전기에너지로 태양광발전소
- 육상과 해상 바람을 이용한 풍력발전소
- 도심 속 조용한 청정에너지 연료전지발전소
- 유기물의 광합작용을 이용한 광양바이오메스발전소(추진)
- 비화산지대에서 24시간 운전가능한 지열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주**

# 완도군, 역사문화관광중심지재도약채비

### 85억 투입, 전시관·생태공원 등 갖춘 묘당도 이충무공 기념공원 조성

완도군은 27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이충무공 유적과 역사를 바탕으로 한 공원화 사업과 관광자원 활성화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먼저 '완도 묘당도 이충무공 기념공원 조성 사업'은 고금면 충무리 묘당도 일원에 85억원의 사업비로 충무공 이순신 전시관 건립, 이순신 생태공원 조성, 관광요 재건 등을 추진한다.

묘당도 일원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수군 본영이 설치되었던 역사적인 곳으로 군은 전략적 요충지인 묘당도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관광 및 이순신 유적 순례 코스를 개발해 역사문화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고금면 덕동리와 윤동리 일원에는 19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3년까지 4년에 걸쳐 '고금 역사

공간 관광자원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중이다.

'고금 역사공간 관광자원 활성화 사업'은 이순신 장군과 명나라 진린이 이끄는 조맹 연합수군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역사적인 현장을 관광과 접목한 교육·체험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부 사업으로는 삼도수군통제영과 봉수대, 활터를 재현하는 역사관광 자원화 사업, 갯벌 생태 체험관 등을 건립하는 어촌체험 자원화, 역사 돌레길과 어울림·해안길 광장을 조성하는 역사공원길 조성 사업, 인프라 시설 구축 등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장보고 청해진 유적지와 가리포진 등을 연계하는 완도의 대표적인 역사문화 관광지로 자리매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유철 완도군수는 "우리 군이 역사와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매력적인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묘당도 이충무공 기념공원 조성 및 고금 역사공간 관광자원 활성화 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양영욱/기자

# 2020 제9회 온라인 남원국제도에 캠프 16일 개막

### 영국·미국·중국·일본·인도·터키 등 12개 국가 113명 작가 참여

이번 남원국제도에 캠프가 16일부터 온라인 플랫폼으로 개최됐다. 사단법인 남원국제도자예술포럼센터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영국·미국·중국·일본·인도·태국·터키 등 12개 국가 113명의 작가가 참여했다.

'조선도공 한국의 혼을 빛다'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캠프는 국내외 도예작가 기획초대전을 필두로 초대작가 워크숍, 초청특강, 물레경진대회 등이 이어졌다.

특히 17일 남원시민도에대학에서는 60여명이 참여하는 2020남원국제도예캠프 물레경진대회가 펼쳐졌다. 이석보 제9회 남원국제도예캠프 대외장은 "이번 온라인캠프는 남원이라는 지역 공간을 벗어나서 우리나라 전체, 아시아, 혹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시민들과 함께하는 행사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며 수준 높은 도예행사가 영상으로 기록되고 많은 관람객들에게 향유되면서 남원도에 예술의 감동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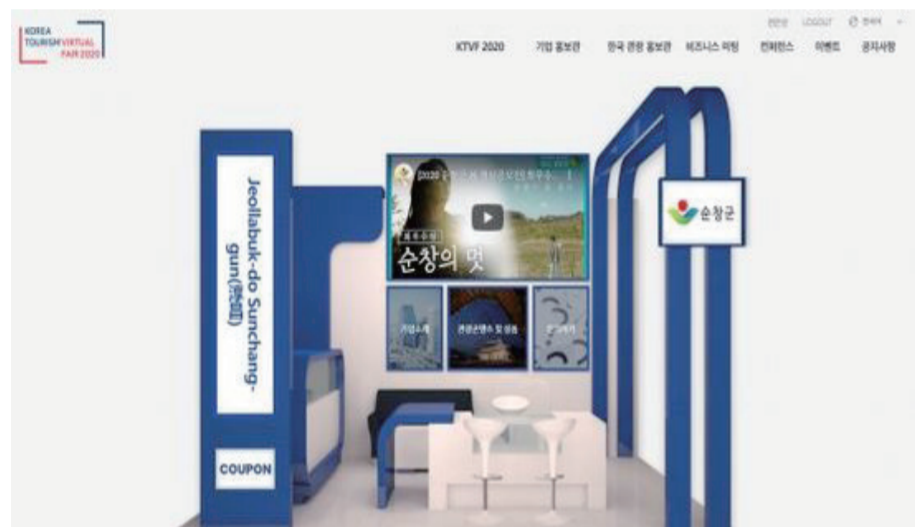
이환주 남원시장은 "자랑스러운 도예의 맥은 남원시민의 도예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통해 지금도 면면히 이어지고 있으며 올해로 아홉 번째를 맞는 남원국제도예캠프가 남원도예문화에 있어 그 명맥을 이어갈 수 있는 뜻깊은 행사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광길 제9회 남원국제도예캠프 운영위원장은 "이번 기획초대전은 12개국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들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소개하고 그들과 소통함으로써 남원도예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미래 도예발전을 위한 계기로 삼고자한다"고 밝혔다.

이어 "온라인이라는 여건을 제약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더 많은 도예인과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이 남원국제도예캠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기대해 보며 새로운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남원지역의 도자예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남원도예의 맥을 잇기 위해 노력하는 도공의 후예들을 격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고 덧붙였다.

이남출/기자

# 순창군, 2020 한국관광 온라인 박람회, 핫플레이스로 거듭나다



### 순창을 온라인으로 세계에 알린다.

순창군이 전라북도도와 함께 '한국관광 온라인 박람회'에 처음 참가해 코로나19 제로 지역의 위상, 한국 속의 안전한 선진 농촌 체험관광지임을 세계에 알렸다.

이번 박람회는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열렸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코로나 19로 위축된 방한 관광업계의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자 마련했다.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만 진행한 박람회에 30여개국 1,000여개 관광업체가 참가했다.

군은 호남의 소금강이라 불리는 강천산, 역사적 아픔을 간직한 섬진강 향가터널, 한국에서 가장 긴 주무담 체계산 출렁다리, 한국 소스의 본고장 고추장 민속마을 등 가장 한국적인 농촌체험 관광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또한 외국인이 한국의 맛을 찾아 순창을 방문할 수 있도록 국내 관련업체와 긍정적 협의를 이끌어내 외국인이 즐겨찾는 우수음식관광지 순창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순창의 지역특산물 소개와 함께 체험 여행상품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참여업체들이 순창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등 순창에 대한 적극적 관심을 보여 코로나 이후 외래관광객 확산을 기대했다. 온라인 박람회에 첫 참여한 조태봉 문화관광과장은 "랜선 홍보에 탄력을 받아 앞으로 변화하는 포스트코로나 환경에 적극 대응해 나갈 전기를 이뤘다"고 밝히며 "변화에 발빠르게 움직이는 청정지역, 안전한 전북의 위상을 위해 순창이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선수/기자

# 목포시, 전세계인이 빠진 글로벌 관광홍보영상, 초대박 예감

### 목포 관광명소를 배경으로 신명나는 국악과 힙합 댄스 펼쳐며 흥보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유튜브 한국관광공사의 채널에 Feel the Rhythm of Korea 목포편이 게시돼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Feel the Rhythm of Korea는 한국관광공사에서 해외 홍보를 위해 제작한 영상으로 특색 있는 지역 관광지를 배경으로 한국적 사운드와 신명나는 춤사위를 펼쳐 3달만에 2억 5천만뷰를 돌파했다.

유명 연예인을 배제하고 젊은 B급 감성을 선보이는 관광홍보영상에 서울, 부산, 전주 편은 이미 전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목포편은 퓨전 국

악 그룹 이남치와 댄스 컴퍼니 엠비큐어스가 등장해 팝 스타일을 가미한 한국의 전통음악에 현대적 춤사위를 펼쳐며 목포 곳곳을 소개한다.

영상은 100초 분량으로 제작되어 고하도 해안데크, 갯바위, 해상케이블카, 유달산, 시화마을, 음악분수 등 관광 명소를 배경으로 현대적으로 해석된 별주부전 노래와 중독성 있는 댄스로 경쾌하게 목포 관광지를 홍보한다. 목포시 관계자는 "지금 업로드 3일만에 43만뷰를 돌파하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전 세계에 목포를 널리 알릴 수 있어 기쁘다"며 "이번 홍보영상을 계기로 앞으로 4대 관광거점 도시로서의 위상을 전세계에 알릴 수 있는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일/기자



# 전남 바다 '40년 변화' 한눈에 본다

### 해양수산과학원, '전남중부해역 연안환경정보 40년' 발간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은 '전남 중부해역 연안환경정보 40년'을 발간, 어업단체와 양식업계, 유관기관 등에 각각 배포했다. 전남 중부해역의 경우 고흥반도와 순천만, 여차만, 득량만 등을 포함한 해역으로 김 등 해조류를 비롯 어류, 패류 등 다양한 수산물이 생산되고 있다. 해양수산과학원은 지구온난화, 이상기후 등으로 변화된 해양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미래 수산환경을 예측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10년 주기로 '연안환경정보'를 발간하고 있다. '전남 중부해역 연안환경정보 40년'은 2011년 발간된 '연안환경정보 30년'의 증보판이다. 책자에는 지난 1980년부터 2019년까지 ▲기온·강수량·풍향·태풍의 영향 등에 대한 기상정보 ▲월별 수온과 염분 등에 대한 해양정보 ▲지점별 용존산소량 및 부유물질농도 등 수질정보 등이 담겨 있어 지난 40년간 중부해역의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책자는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 누리집(opsi.jeonnam.go.kr)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박준택 해양수산과학원

장은 "연안환경에 대한 정보는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한 어업인에게 매우 중요한 정보"라며 "이번 책자가 해양환경 변화와 적조·태풍·고수온 등 자연재난 대응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과학원은 전남 연안의 해양환경정보를 지속적으로 기록·관리하고 어업인에게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도내 해역 120개소에 '어장관측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사업도 추진중에 있다.

김덕윤/기자



# 진도군, 청정 돌김 위판 '시작'...작황 좋아



### 120kg 한망에 평균 15-17만원 위판

작조가 발생하지 않은 청정 바다에서 자란 겨울철 별미인 '돌김'이 지난 13일 진도군 고군면에서 수확과 위판을 시작했다. 16일 군에 따르면 고군면 회동 위판장 물양장에서 실시된 위판에는 32t의 물김을 위판했으며 120kg 한 망에 평균 15-17만원에 거래돼 4,500만원의 위판고를 올렸다. 올해는 첫 햇김은 진도군 고군면 일대 김 양식장에서 생산된 조생종 품종인 잇바다 돌김으로 곱창처럼 길면서 구불 구불하다고 해 일명 '곱창 김'으로 불린다. 곱창 김은 맛과 향이 만생종인 일반 돌김에 비해 뛰어나 소비자들에게 인

기가 많아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으며 올해 12월초까지 수확이 예상된다. 진도군의 2021년산 김 양식 규모는 1만4,813ha로 전국에서 제일 많은 22%를 차지하고 있다. 올해는 7만7,000t의 김 생산이 예상됨에 따라 위판고가 1,000여억원으로 어업인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진도군은 지난해 6만7,672t을 생산, 756억원의 위판고를 기록했다. 진도군 수산지원과 양식산업담당 관계자는 "품질이 우수한 김 생산과 생산량 증가를 위해 김 육·해상 채묘 등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했다"며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양호/기자

# 완도수목원서 '국화향기'로 힐링하세요

### 17일부터 25일까지 '가을산책주간' 추진

전라남도 완도수목원은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이 재충전 할 수 있도록 오는 17일부터 25일까지 '2020년 완도수목원 가을산책주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완도수목원을 방문하면 늘 푸른 난대림과 각양각색의 국화가 어우러진 특색 있는 수목원의 가을을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다.

특히 가을에 개화하는 털머위와 금목서 구골목서 등 같은 난대수종 꽃들과 더불어 다채로운 색깔의 국화꽃을 활용한 국화 꽃길, 이색 포토

존이 조성돼 방문객들로 해금 가을 향기를 만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산림전시관 1층에 한국무궁화연합회 작가들이 그린 나라꽃 무궁화 작품을 비롯 완도 지역 문화 예술인들의 회화 작품도 전시해 남도 문화예술의 깊이와 정취를 한껏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위안진 완도수목원장은 "산림을 통해 힐링할 수 있는 이번 행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보다 나은 산림휴양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안/기자



# 정읍시, 책 읽기 마라톤대회·책 읽는 가족 '한 자리에'

### 독서 마라톤대회 우수자 10명, 책 읽는 가족 3가족 시상

정읍시가 책 읽는 도시 조성 및 도서관 이용 활성화에 앞장서 온 시민들에 대한 시상을 통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정읍시립도서관 지난 15일 전 시민 독서 운동의 일환으로 실시한 제4회 책 읽기 마라톤대회 우수 완주자 시상 및 책 읽는 가족에 대한 인증서를 수여했다.

책 읽기 마라톤은 독서와 마라톤을 접목시켜 2m를 책 1페이지로 환산해 설정한 독서량을 완주하는 독서대회다.

기간 내에 독서기록 일지를 작성해 제출하면 완주하는 것으로 인정

한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도서관 이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책 읽기 마라톤대회에 총 170명이 참여하고 83명이 완주했다.

이번 책 읽기 마라톤대회에서는 김보현 이용자를 비롯한 4명의 우수 완주자에게 정읍시장을 수여했다.

또, 학생중 김가현 학생 외에 4명의 우수 학생에게는 정읍교육지원청장상을 수여했다. 이와 함께, 시립도서관은 지난 1년간 가족 회원들의 도서 대출기록과 도서관 방문 횟수, 문화프로그램 참여 등을 분석해 우수 가족을 선정하고 인증서를 수여했다. 책 읽는 가족은 가족 단위의 독서 생활 증진에 기여하고 도서관 활성화를 목적으로 정읍시와 한국도서관협회가 추진하는 가족 독서 운동

캠페인이다. 올해 선정된 가족은 중앙도서관에서 유청현 가족, 신대인도서관에서 박주상 가족, 기적의 도서관에서 송부용 가족이다.

이번 수상자들과 독서 마라톤 완주자들에게는 정읍시도서관 특별회원으로 등록되며 내년 한 해 동안 도서관 대출권 수를 1회당 5권에서 10권으로 확대해 대출할 수 있는 혜택이 부여된다. 유진섭 시장은 "많은 시민이 책 읽는 즐거움을 공유하고 독서 습관과 자기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정읍시민들이 즐겨 찾고 행복한 책 읽기를 할 수 있는 독서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하은/기자

# 행복지수 1위 북유럽 행복 비결 공유

### 1기 상임회장인 김승수 전주시장의 임기 마무리, 2기 상임회장으로 김영중 종로구청장 선출

핀란드와 덴마크, 스웨덴 등 세계에서 가장 높은 행복지수를 기록하고 있는 북유럽의 주한 대사가 전국의 지자체들과 행복 비결을 공유했다.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는 16일 서울 페르타워 3층 페르탈에서 핀란드·덴마크·스웨덴 주한 대사와 협의회 회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제5차 정기총회 및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지난 2018년 출범한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는 주민행복을 최우선 정책 목표로 더불어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 37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출범 2년째를 맞이한 협의회는 이날 오전에 열린 정기총회에서 1기 상임회장인 김승수 전주시장을 비롯한 임원진의 2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2기 임원진을 선출했다. 제2기 상임회장

으로는 김영중 종로구청장이 선출돼 김 시장으로부터 배턴을 받았다. 이후에는 '북유럽 행복'을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이 열렸다. 행복 토크 콘서트로 진행된 심포지엄에는 좌장인 하수정 북유럽연구소 소장과의 아이너 옌센 주한 덴마크 대사, 예로 수 오미넨 주한 핀란드 대사, 야콥 할그렌 주한 스웨덴 대사가 참여해 행복의 비결을 소개했다. 토크 콘서트에서는 3년 연속 UN 행복지수 1위를 지킨 핀란드의 행복 비결로 높은 수준의 신뢰와 사회통합이 꼽혔다.

또 다른 비결로는 역경을 마주하는 강한 의지를 뜻하는 '시수'라는 단어를 통한 긍정 마인드가 주목됐다. '취계의 나라' 덴마크의 경우 행복의 비결로 '워라밸'과 '삶의 자율성'이 소개됐다. 취계는 편안하고 안락한 상태를 뜻하는 덴마크어로 특히 소박함과 간소함을 강조했다. 스웨덴은 과한 것을 바라지 않는, 편안하고 소박한 삶을 행복의 비결로 꼽으며 '라곰'이라는 단어를 소개했다. 라곰은 스웨덴어로 '적당한', '충분한', '딱 알맞은'을 뜻한다. 토

크 콘서트에 이어 최희경 경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와 서연수 한국고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가 각각 '북유럽 사회의 공공가치와 행복정책', '북유럽 의회, 시민, 민주주의'에 대해 발표했다. 이후 패널 토론과 테이블 토론이 이어졌다. 내년 3월 20일 '세계 행복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준비 중인 협의회는 행복영향평가 추진도 계획하고 있다. 이에 앞서 협의회는 지역주민의 행복을 위한 지자체간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행복조례를 제정하고 행복실태조사를 추진하는 등 기반 마련을 위해 힘써왔다. 지난 6월에는 고창에서 회원 지자체 전원 결의로 '행복정책 추진 촉구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2년 동안 협의회를 이끈 김승수 전주시장은 "행복은 비전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전략과 정책이 중요하다"며 "행복부 설립 및 행복세 신설 등의 정책을 제도화하기 위해 회원도시들이 함께 힘을 모아 시민이 행복한 도시,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일/기자

# 권익현 부안군수, 백산면 부추 재배농장 현장행정

권익현 부안군수는 16일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과의 열린 소통을 위한 현장행정 일환으로 백산면 이소정씨의 부추 재배농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농가를 격려했다.

이소정씨는 지난 2016년부터 감자와 수박을 재배하던 것은 보다 소득이 높은 부추로 작목을 전환해 지난 4월부터 생산하며 지역농업을 선도하고 있다. 이소정씨는 "현재 부추 하우스를 8동 경작하고 있는데 향후 3동을 추가로 경작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며 "수확량 증가에 따라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부안형 푸드플랜에 참여하고 싶다"고 밝히면서 포장박스 지원 등을 건의했다.

권익현 군수는 "희망이 있는 농업·농촌을 육성하기 위한 해결책은



항상 현장에 있고 농가와 소통을 통해 찾을 수 있다"며 "지속적인 소통행정을 통해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는 지원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현태/기자

# 꽃심 '우주로1216', 학생들 체험공간 '인기'

### 전주성심여자중학교 1학년 학생 총 60여명, 15~16일 '우주로 1216'의 '트윈탐험' 프로그램 참여

전주시립도서관 '꽃심'에 조성된 트윈세대 전용공간 '우주로 1216'이 학생들 체험 공간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전주성심여자중학교 1학년 학생 60여명은 15일 16일 이틀 동안 우주로 1216의 '트윈탐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성심여중의 우주로 1216 방문은 지난 7월에 이어 2번째다.

트윈탐험은 초등학교 5학년 학생부터 중학생까지의 단체가 학기 중 오전 시간을 활용해 소통을 위한 '특목존' 넘치는 에너지를 발산할 '꿈쿵존'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속속존' 사색의 공간인 '곰곰존' 등 4개의 경험존을 둘러보는 견학 프로그램이다. 15일 체험에 참여한 한 중학생은 "듣고 싶은 음악도 자유롭게 듣고 무대에서 춤도 출 수 있어 매일 오고 싶을 정도로 즐거운 공간"이라며 "꼭신한 반백이 있는 곰곰존과 자유롭게 작업할 수 있는 속속존이 편안하고 좋았다"고 전했다.

안민정 전주성심여자중학교 교사는 "휴대폰이나 게임이 유일한 매체와 놀이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주로 1216 같은 체험공간은 트윈세대



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우주로 1216에는 코로나19로 문을 열지 않는 등 어려운 상황에도 상반기에 15개 학교, 376명이 다녀갔다.

우주로 1216은 이용자인 학생들은 물론이고 그간 공간과 콘텐츠의 제약으로 해볼 수 없었던 수업을 시도할 수 있는 '제2의 교실' 프로그램을 통해 교사들에게도 필요한 공간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트윈탐험 신청 등 견학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립도서관 꽃심 '우주로1216'으로 문의하면 된다.

또 진로체험지원센터 '꿈길'을 통해서도 프로그램에 신청할 수 있다.

박남미 전주시립도서관장은 "'우주로 1216'은 청소년들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방문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 것"이라며 "다양한 체험과 경험이 가득한 트윈세대들의 아지트로 조성할 수 콘텐츠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승일/기자

# 진안군 청소년 지도자 연수 큰 호응

진안군은 16일 진안교육지원청에서 청소년 관련 업무 종사자 30여명 대상으로 청소년 지도자 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하태민 교수를 초빙해 창의적 생각을 촉진하는 교수법, 가치덕목을 활용한 인성 교수법 등 참여와 소통을 촉진하는 흥미로운 교구로 체험형 연수를 진행했다.

하 교수는 강의에서 요즘 아동 청소년들이 부정적인 정서가 많아 인성교육 지도에 어려움이 많기에 다양한 지도 기법을 습득해 개개인의 특성에 맞게 지도할 수 있도록 지도자 역량강화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요내용으로는 회복탄력성

높이기 성장 마인드셋 향상을 주제로 자아선언문 만들기 및 역할극을 실시했고 생각과 감정의 인식표현 촉진을 위해 이미지프리즘카드 활용법 등을 교육했다. 연수에 참여한 예술지역아동센터 고은진 아동복지교사는 "아이들의 닫힌 마음을 마음껏 여는 기법을 배우고 감성을 자극해 아이들의 생각의 폭을 넓히는 방법을 배우게 되어 의미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진중성 진안군수는 "청소년들의 다양한 생각을 이해하고 올바르게 지도하는데 필요한 지도자 역량강화 교육은 무엇보다도 필요하며 앞으로도 보다 질 높은 상담과 지도로 우리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

랄수 있도록 지도자 연수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유종철/기자



# TOPPER

기쁜날 감동을 두배로 케이크토퍼  
기념일 축하, 여행 감성사진, 기업홍보, 이벤트에 빠질 수 없는 케이크토퍼  
토퍼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 STICKER

### 네임스티커&각종 홍보판촉 스티커

전제품이 특수 방수 코팅 되어있어 컵이나 식기류에 붙여도 번지거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린이용품은 물론 각종 생활용품, 홍보물에도 활용하시기 좋습니다.



디자인다해  
TEL:031.984.8245

# 강릉시 희토류 추출 기술개발 및 사업화 적극 지원



## 강릉시-한국지질자원연구원 업무협정 양해각서 체결

강릉시와 국책연구기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지난 15일 강릉시청에서 '석탄재 희토류 추출 기술개발'에 대한 업무협정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정 양해각서를 통해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보유한 탄소 광물화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석탄재 내 희토류 회수 등 저탄소 신산업 창출의 고도화 확보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을 위한 교류를 확대한다. 특히 기술 상용화를 위한 수요기업 2개사가 기술개발 단계에서부터 참여해 신산업 창출과 기술 상용

화가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희토류는 LED, 반도체, 하이브리드자동차, 이차전지, 풍력발전 등 첨단산업 전반에 걸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원이나, 우리나라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중국이 전 세계 희토류 90% 이상을 생산하고 있어 향후 전략자원인 희토류의 확보경쟁은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국가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이에 세계 각국은 희토류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최근 일본

은 해저 희토류 보존 여부를 확인하는 등 대체 방안을 적극 모색중인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희토류를 국가전략자원으로 인식해 기술개발에 착수한 것은 국제적 산업생태계에서 우월한 지위를 얻을 것으로 보여진다. 김한근 강릉시장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옥계센터에서 내년부터 진행되는 석탄재 희토류 추출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하며 "동해안경제자유구역 옥계첨단소재 융복합산업지구 준공에 따라 강릉이 첨단소재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동원/기자

# 진천군, "코스코스 꽃밭에서 힐링하세요"

진천군이 조성한 코스코스 꽃밭이 만개하면서 오가는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16일 군에 따르면 진천읍과 덕산읍 2곳에 대규모 코스코스 꽃밭 조성을 완료했다. 진천읍 신정리 용화사 입구부터 백곡천 자전거도로를 따라 1km, 35,000㎡ 규모로 조성된 꽃밭은 태양광가로등 설치도 얼마 전 완료해 야간에도 가을 정취를 만

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작년에 이어 방문객들의 큰 호응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덕산읍 혁신도시 서천고등학교 앞에 조성한 코스코스 꽃밭도 37,000㎡ 대단위로 조성해 지난해 해바라기 꽃밭에 이어 화려한 가을 풍경을 선사하고 있다. 현장에서 만난 지역 주민은 "코로나19로 지역축제가 취소되고 여행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근처에 가을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생겨 너무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많은 분들의 뜨거운 호응에 힘입어 다시 한 번 가족 나들이 장소를 마련했다"며 "많은 분들이 꽃밭을 찾아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을 조금이나마 치유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 천안시축구단, '득점력 폭발' 조주영 앞세워 선두 굳히기 도전

## 천안시축구단, '득점력 폭발' 조주영 앞세워 선두 굳히기 도전

천안시축구단은 오는 전주 시민축구단과 K3리그 스플릿 B 5라운드 경기에서 조주영을 앞세워 선두 굳히기에 도전한다. 지난 스플릿 4라운드에서 천안은 조주영의 헤트트릭으로 정주FC에 승리를 거뒀다. 정주에 승점 3점 차로 10위에 머물던 천안은 승점은 30점으로 동물이지만 골 득실에서 앞서 9위에 올랐다. 목표인 스플릿 B 그룹 1위를 달성하기 위해선 전주전 승리로 선두 굳히기가 필요하다. 홈팀 전주는 현재 연패에 빠졌다. 최근 두 경기에서 정주, 양주와 우열을 가르기 힘든 경기를 펼쳤으나 종료 직전 역전골을 허용하며 14위에 머물러 강등권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다. 하위권 탈출을 위해 총력을 다할 전주에 천안은 다득점과 적은 실점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천안은 득점력에 한껏 물이 올랐다. 조주영, 정성현과 같은 공격자원의 영입과 시즌 초반 아쉬웠던 수비문제를 해결하며 스플릿 라운드 돌입 후 4경기에서 7득점 1실점으로 만족스러운 성적표를 쟁겨왔다. 선수단은 남은 세 경기에서도 '원 팀'으로 무패행진을 달리

겠다는 각오다. 오는 전주전에 주목해야 할 키플레이어는 조주영과 정성현이다. 여름 이적시장을 통해 이적해온 조주영은 꾸준히 출전해 11경기에서 6골을 넣으며 팀 내 득점 1위를 기록 중이다. 공격수 조주영은 뛰어난 결정력과 빠른 스피드 그리고 연계플레이로 오는 경기에서도 득점포를 가동할 예정이다. 정성현은 리그 후반기에 들어서며 매 경기 '선방쇼'를 보여주고 있다. 오는 경기

서도 눈부신 선방쇼로 천안의 골문을 지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 라운드 헤트트릭으로 팀 내 득점 1위에 등극한 조주영은 "팀원들이 모두 도와준 덕분에 지난 경기에서 헤트트릭을 기록할 수 있었다. 전주전 이 올 시즌 마지막 원정경기인데 이 경기에서도 팀원 모두가 같은 목표로 꼭 승리를 가지고 돌아오고 싶다"며 전주전 각오를 밝혔다.

김원호/기자



# 서천군, 걷기 활성화 '걷주 챌린지' 호응

## 챌린지, 온라인 추천 등 연말까지 다양한 이벤트 계속

서천군보건소는 서천군체육회와 함께 건강한 서천 만들기를 위해 지난 9월 3일부터 10월 2일까지 스마트폰 앱 '걷주'를 활용한 비대면 건강증진사업이 좋은 반응 속에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걷주 앱을 활용하면 본인의 걸음 수는 물론 참가자들 가운데 나의 순위를 확인할 수 있어 경쟁심을 유발하고 대면 없이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운동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수시로 진행되는 목표 걸음 수 달성 이벤트인 챌린지에 가입해 목표를 달성하면 상품도 받을 수 있다. 지난달 '1일 1만 보, 1달 30만 보 걷기' 챌린지 결과 659명이 참여한 가운데 238명이 성공했고 걸음 수가 가장 많은 군민은 123만 6661 보를 걸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소는 챌린지 선물로 한 달 걸을 수 1위에서 5위까지 노르딕 워킹 스틱을 지급했으며 온라인 추천을 통해 50명에게 스마트 밴드, 30명에게 노르딕 워킹 스틱을 지급했다. 또한, 걷주 앱 가입자를 대상으로 체성분 분석, 혈압·혈당·콜레스테롤 수치 등 기초 검사를 실시하고 걷주 앱 내 서천군 커뮤니티에 건강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조재경 건강증진팀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외부활동 감소로 주민



들의 건강관리가 자칫 소홀해질 수 있다"며 "걷기는 혼자서도 언제든 할 수 있고 비용도 들지 않으면서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인 만큼 앞으로도 두 달간 챌린지와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군민이 걷기 운동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 동화 속 주인공은 바로 나 재밌는 동화 체험

## 태장도서관, 도내 유일 3D 체험 '체험형 동화구연' 운영

태장도서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5~7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책에 대한 흥미와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3D 독서프로그램 '체험형 동화구연'을 10월부터 다시 운영한다. 대형 스크린의 3D 화면에 아이들의 모습이 투영되면서 직접 동화 속 주인공이 되어 체험함으로써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10월에는 '피노키오', 11월에는 '팔죽할멈과 호랑이', '오즈의 마법사', '걸리버의 모험', '청개구리' 등 아이들에게 친숙한 동화가 준비되어 있다. 태장도서관 체험동화관에서 매주 화·수·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단체 체험,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개인 체험으로 진행된다.

최만식/기자

**태장도서관 체험형 동화구연 10-11월 운영안내**

“대형스크린을 통해 가상공간에서 펼쳐지는 동화 속 배경에 아이들이 참여하는 가상현실 동화 구연 프로그램”

- 운영 일시 : 매주 화·수·금 10:00~12:00 단체체험 (1회 10:00~11:00 15명 / 2회 11:00~12:00 15명) 매주 토 10:30~11:30 개인체험
- 운영 대상 : 관내 5~7세 어린이
- 접수 기간 : 2020. 10. 20.(화) 10:00~ 선착순
- 접수 방법 : 태장도서관 홈페이지 → 문화행사 → 체험형 동화구연
- 프로그램

기간	요일	동화
10월 5주	토	피노키오
11월 1주	화, 수, 금, 토	팔죽할멈과 호랑이
11월 2주	화, 수, 금, 토	오즈의 마법사
11월 3주	화, 수, 금, 토	걸리버의 모험
11월 4주	화, 수, 금, 토	청개구리

미리내도서관 태장도서관 (http://lib.wonju.go.kr/tj)

# 김정섭 공주시장, 풀뿌리 자치대상 '행정종합대상' 수상

## 풀뿌리 지방자치 성공 안착 공로... 시민자치권 강화 주력

김정섭 공주시장이 지난 15일 논산시 노블레스 웨딩홀에서 열린 '2020 풀뿌리 자치대상' 시상식에서 '행정종합대상'을 수상했다. 풀뿌리 지방자치대상은 충남지역 신문협회가 매년 충남도와 15개 시·군 시장·군수와 지방의원 등을 대상으로 자치시대 지역발전과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인물을 발굴해 시상하는 상이다. 이번 시상식에서 김정섭 시장은 홍성열 충청군수 등과 함께 행정종합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으며 이맹식 공주시의원은 기초부분 의정발전대상을 받았다. 김 시장은 민선7기 시민참여와 소통을 통해 공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신바람 공주 활기찬 미래'라는 비전 아래 지난 2년여 동안 시정을 이끌며 지방자치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공로가 인정됐다. 특히 충남 최초로 '읍·면장 주민추천제'를 도입해 시장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을 시민들에게 이양하며 시민주도의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 성공사례를 남겼다. 또한, 주민참여 예산규모를 전년대비 31.6% 높이는 등 주민참여 권한을 대폭 확대, 예산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했다. 매주 정례브리핑과 매월 신바람 정책특보 토론회, 연2회 읍면동 주민과의 대화, 시민 100인으로 구성된 신바람시민소통위원회 등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 구현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무상교육과 무상교육, 무상급식 등 3대 무상교육을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해 교육도



시 공주의 위상을 높였으며 노인 일자리 확대, 치매 예방·건강관리를 위한 다양한 정책으로 어르신들의 복지증진과 권익신장에 기여했다. 안전한 환경 속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인프라 확충으로 여성친화도시 지정, 가족친화도시 재인증 그리고 국제안전도시 및 예비문화도시에 잇따라 선정되면서 도시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여기에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비·대응체계 점검 및 선제적 예방관리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시행, 건강한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 등을 추진해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구현에 앞장선 점도 긍정 평가를 받았다. 김정섭 시장은 "민선7기 공주시정의 가장 큰 목표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시정을 구현하는 것이라 생각해 그동안 소통과 협치를 기반한 시민자치권 강화에 주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시민들과 함께 지역의 성장 동력 발굴과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고정화/기자

### 구미시청 검토팀 장만억 '2020 체육발전유공'체육훈장 수훈

구미시청 검토팀 장만억 선수가 지난 15일 서울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58회 대한민국체육상 및 2020년도 체육발전유공자 포상 전수식'에서 체육훈장 '거상장'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체육훈장은 체육발전에 공을 세워 국민체육의 위상을 높이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선수, 감독, 체육 관련 단체장 등 체육인에게 수여하는 훈장이다.

장만억 선수는 '제16회 세계검도선수권대회' 개인전 3위, '제17회 세계검도선수권대회' 단체전 2위를 건인했으며 '제18회 봉림기 전국 실업검도대회' 통합부 개인전 우승

을 차지하는 등 다수의 국제·국내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남궁영기기자



### 아산시 딸기 재배농가 한민우, 농촌진흥청 '농업기술명인' 선발

딸기, 토마토 등 영농경력 47년, 환경개선 에너지 효율화 특허기술 4건 보유

아산시 '석정농원 딸기농가' 한민우 대표가 채소분야 '2020년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으로 선발됐다. 최고농업기술명인은 식량작물, 채소, 과수, 화훼·특용, 축산분야에서 탁월한 농업기술을 보유하고 지역농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농업인을 분야별로 한명씩 선정해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채소분야 한민우 명인은 비닐하우스용 냉고반, 양액재배용 베드, 폐양액 재처리장치 등 딸기재배를 위한 환경개선과 에너지 효율화 연구·개발 등 총 4건의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아산시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스마트팜 시범사업을 통해 컴퓨터와 스마트 기기가 적용된 온실 환경, 시설 최적 자동제어 시스템을 구축해 생산성 및 품질을 향상시킨 점이 명인 선정에 큰 도움이 됐다.

농업기술명인으로 선정된 한민우 대표에게는 명인패와 시상금, 기념 손책기 동판이 수여되며 올해 12월 농촌진흥청에서 열리는 '농촌진흥사업 종합보고회'에서 시상식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오세현 시장은 "채소분야 농업기술명인의 기술적 노력과 성과가 지역사회 영농활동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해 농업발전

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 권용훈 (주)문경약돌돼지 대표, 제25회 문경대상 농업부문 수상

문경약돌돼지 전국 브랜드화 통해 문경 한돈 가치 향상 앞장선 공로 인정받아

문경약돌축산물융복합명품화사업단은 사업단의 실무추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주)문경약돌돼지의 권용훈 대표가 제25회 문경대상 시상

식에서 농업부문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경북 문경시가 주최하는 '문경시 문경대상'은 지역발전과 향토문화 창달에 공헌했거나 사회 각 분야에서 공헌한 자를 시상해 시민의 귀감이 되고 문경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됐다. 문경약돌돼지는 지난 20여 년 간 문경시를 대표해 문경약돌돼지의 전국적인 브랜드화를 통한 문경 한돈의 가치향상과 문경 알리기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을 하게 됐다.

1999년 상표등록한 문경약돌돼지는 거정석을 먹여 불포화지방산과 필수아미노산 함유가 높아 육질이



탱탱하고 쫄깃하면서도 부드럽다.

특히 돼지고기 특유의 냄새가 없고 기름기가 입안에 남지 않아 산뜻하고 담백한 맛으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다.

권용훈 (주)문경약돌돼지 대표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문경약돌돼지

의 우수성을 알리고 브랜드화를 위해 노력해 온 과정들이 인정받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 문경에서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돈 브랜드로 공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인용기자

### 권영세 안동시장,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응원 캠페인 동참

권영세 안동시장이 지난 14일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대면 업무의 갖은 어려움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보건 의료, 돌봄 등 필수노동자들에게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하는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이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대면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보건 의료, 환경미화, 운송배달업 종사자 등을 따뜻하게 격려하고 응원하기 위해 지난달 25일 시작됐다.

엄태항 봉화군수로부터 지명을 받은 권영세 안동시장은 "코로나19 사태 최일선에서 시민들의 일상 생활을 위해 많은 위험에 노출된 상태에서 일하고 있는 보건 의료, 환경미화, 운송배달업 종사자들에게



진심어린 감사와 응원을 보낸다"고 말했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다음 캠페인 참여자로 김호석 안동시의회 의장,

김학동 예천군수, 조현재 한국국회진흥원 원장을 지목했다.

김영호기자

### 주낙영 경주시장,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주낙영 경주시장이 14일 열린 대한민국헌정회 주관 제1회 대한민국헌정 대상에서 자치행정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올해 첫 회를 맞는 대한민국 헌정 대상은 전·현직 대한민국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대한민국헌정회에서 국민복 증진·국가 미래전략 수립·국가인재 양성에 기여한 공이 큰 현직 광역·기초자치단체장, 시·도교육감, 지방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공적 평가해서 주는 상이다. 주 시장은 민선7기 경주시장으로 역임하면서 역사문화도시 위상 제고 지역화폐 '경주페이' 발행, 혁신원자력연구단지 유치, 차량용 첨단소재 성형가공기술 고도화센터 유치 등 민생경제에의 선제적 대응을 비롯해 도시



재생 뉴딜사업 및 어촌뉴딜 300사업 추진 등 시민행복도시 조성 분야에서 급변하는 환경에 능동적인 대처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수상은 시장 개인의 영예가 아니라 지역발전이라는 큰

항해를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26만 경주시민이 받는 상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시민들과 함께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반식기자

### 장수군 태양광 발전 갈등 해결 촉구

장수군의회 김종문의원이 16일 제31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장수군 태양광발전 갈등 해결'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했다. 김종문 의원은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을 품고 있는 장수가 지금 태양광 발전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 주민의 고통이 점차 가중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태양광발전시설 예정지가 수백군데 이르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주민과 군, 발전시설업체 간 대립이 지속될 수밖에

에 없음을 강조했다. 태양광발전 또한 자연과 인간의 삶을 지속가능한 형태로 바꾸기 위한 도구일 뿐이며 소수의 이익을 위해 마을공동체가 파괴되는 현재의 추진과정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대안에너지'의 본 모습으로 농촌과 자연, 사람과 마을을 존중하는 절차로 추진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특히 최근 천천면 지풍골 태양광시설 갈등과 관련해 요식행위로 전락한 주민설명회, 소중한 가야·백제 문화유산을

품고 있는 주변지역 개발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장수군에서는 법과 제도의 현실적인 한계만을 이야기하며 태양광발전으로 커지는 갈등을 외면하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자연과 사람, 마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공익형 에너지 자립모델로의 전환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체계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했다.

곽승오기자



# 동대구 더센트로 데시앙

# 광주 K-POP 스타의 거리 홍보대사에 '크래비티' 위촉

### 첫 활동으로 상추튀김 등 광주음식 홍보 영상콘텐츠 촬영

광주광역시시는 9인조 그룹 크래비티를 '광주 케이팝 스타의 거리' 홍보대사에 위촉했다.

크래비티는 차세대 케이팝 스타로 제4회 소리바다 베스트 케이뮤직 어워즈 '신한류 소리바다 신인상'을 수상한 실력 있는 그룹이다.

광주시는 전 세계 케이팝 팬들을 광주로 유치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총장로 옛 학생회관 뒷골목에 광주 출신 케이팝 스타를 테마로 '케이팝 스타의 거리'를 조성하고 있다.

- 스타의 거리는 스타랜드프린팅,

스타기념관, 케이팝 스타 벽화 등이 조성되며 올해 11월 개장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스타의 거리에는 크래비티 멤버 9명을 포함해 동방신기의 유노윤호, 몬스터엑스 등 아이돌 스타 30여명의 핸드프린팅도 설치된다.이날 홍보대사로 위촉된 크래비티는 1년간 스타의 거리와 광주 관광지를 알리는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친다.

그 첫 번째 활동으로 맛의 고장 광주의 음식을 전 세계 케이팝 팬들에게 알리기 위한 광주 대표 음식을 소개하는 영상콘텐츠를 제작해 유튜브로 홍보한다.스타의 거리에 위치한 상추튀김집을 방문해 광주의 대표간식인 상추튀김을 맛보며 광주출신

멤버 우빈이 멤버들에게 학창시절 즐겨먹었던 상추튀김에 대한 에피소드를 들려준다.또한 매년 김치축제가 열리는 김치연구소에서 김치 담그기 체험을 직접 해보며 김치의 우수성을 케이팝 팬들에게 전하고 전라도 특유의 김치 맛을 소개할 예정이다.이 날 크래비티의 활동들도 영상으로 촬영 제작될 예정이다.촬영된 영상은 케이팝 유튜브채널 '와파TV'와 광주시 공식 유튜브채널 '빛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외에도 크래비티는 향후 스타의 거리가 개장되면 팬들과 함께 스타의 거리를 방문하는 홍보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덕윤/기자



## “신사옥 부지예요~”

### '놀면 뭐하니?' 지미 유, 신박기획 신사옥 마련? 환불원정대 본격지 생겼다

MBC '놀면 뭐하니?'의 '지미 유'가 신박기획의 큰 그림이 펼쳐질 신사옥 부지를 마련했다고 해 기대를 모은다.환불원정대의 본격지가 될 그곳은 시원한 뷰를 자랑하며 '오픈 마인드'의 신박기획에 딱 맞는 플렉스 넘치는 비주얼로 눈길을 사로잡을 예정이다.지난 신박기획 직원 조희때 '미지의 천재 작사가'의 탄생을 알린 김지섭에 이어 이번엔 신박한 작곡가로 정봉원이 신박기획의 '로고송'에 대한 욕심을 드러냈다고 해 관심을 모은다.

오는 17일 방송되는 MBC '놀면 뭐하니?'에서는 신박기획의 미래가 담긴 신사옥 부지에서 진행된 직원 조희 모습 공개된다.'지미 유'는 신박기획의 매니저 정봉원과 김지섭을 새로운 사무실로 불러 직원 조희 시간을 가졌다.

쉽게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비밀스러운 신박기획의 새로운 사무실은 뺨 뚫린 시원한 뷰를 자랑하며 '오픈 마인드'의 신박기획을 제대로 보여 주는 곳. 어렵게 사무실을 찾은 매니저 정봉원과 김지섭은 어안이 병병한 표정을 지었는데, '지미 유'는 "신사옥 부지예요~"며 신박기획의 앞으로의 청사진을 제시했다.그는 앞으



로 프로듀서 작사가, 작곡가 등 다양한 아티스트를 발굴할 것을 밝혔다.

'지미 유'는 김지섭 매니저의 숨은 작사 실력을 발굴한데 이어 작곡을 하고 싶다는 정봉원에게도 '로고송' 작곡을 제안했다고. 또한 '음악천재'로 불리며 시청자들의 다양한 제보가 이어지고 있는 김지섭은 더욱 신박하게 업그레이드된 작사 실력을 보여줬다고 해 기대를 모은다.

그런가 하면 유일하게 신박기획의 단체복에서 자유를 얻은 '패션센스쟁이' 정봉원은 그의 패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한 '지미 유'와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지미 유'가 "투 머

치"며 도발하자 정봉원은 참지 못하고 자리에 벌떡 일어나 회심의 한마디를 투척했다는 전언이다.이에 '지미 유'도 그동안 매니저들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당당권을 재소환했다고 해 웃음을 자아낸다.'지미 유'가 환불원정대의 데뷔 무대와 활동을 앞두고 매니저들을 위해 사원증과 명함을 전달하는 모습도 공개될 예정이다.오는 17일 환불원정대의 'DON'T TOUCH ME' 첫 데뷔 무대를 시작으로 '지미 유'가 그리는 '신박기획의 세계'는 어떤 모습일지 관심이 집중된다.

전순희/기자

# 랜선으로 즐기는 '여수밤바다 낭만버스킹' "인기"

### 11월 말까지 매주 금·토 저녁 7시~9시 페이스북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

코로나19로 무기한 연기됐던 '여수밤바다 낭만버스킹'이 지난달 18일부터 비대면 온라인 공연으로 생중계되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쳐 있는 시민과 관광객에게 위로와 힐링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여수시에 따르면 11월 28일까지 매주 금·토요일 저녁 7시부터 2시간 동안 비대면 온라인 버스킹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여수밤바다 낭만버스킹은 멋진 야경으로 유명한 해양공원 일대와 낭만포차에서 매년 다양한 장르의 버스킹들이 공연하면서 여수 '버스킹의 메카'로 알려져 여수의 대표 관광콘텐츠가 되었으나,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무기한 연기되면서 개최가 불투명했다.

시는 공연예술계에 활기를 불어넣



고 시민들에게는 온라인으로나마 버스킹을 즐길 수 있도록 공연 방식을 변경해 운영했다.

실시간 버스킹은 매주 금, 토요일 저녁 7시부터 2시간 동안 페이스북 '2020여수버스킹축제' 채널을 통해 관람이 가능하다.

녹화 편집본은 유튜브 'KBC광주방송'으로 업로드 되어 언제든지 즐길 수 있다.시 관계자는 "여수밤바다를

배경으로 낭만과 희망을 노래했던 버스커들을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는 랜선 버스킹이 인기를 끌고 있다"며 "비대면 온라인 버스킹을 통해 침체된 공연예술계에 힘을 드리고 시민들에게는 마음에 위안과 희망을 주는 공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남출/기자

# 남원시, 제47회 대한민국 춘향국악대전 개최

### 최고의 명인·명창 등용문 춘향국악대전 이틀간 열려

코로나19로 연기되었던 제47회 대한민국 춘향국악대전이 오는 10월 21일부터 22일까지 춘향문화예술회관과 함파우소리체험관에서 비대면과대면을 병행해 이틀간 개최된다.

대한민국 춘향국악대전은 한국의 전통문화와 민족예술을 드높이기 위해 매년 춘향제 기간에 열리며 올해로 47년째 전통을 이어왔다.

본 대회에서 배출된 역대 명창 및 국악인들은 국악계의 최고 명인·명창으로 활동하고 있다.경연 종목은 판소리, 무용, 기악관악, 현악·병창 민요 이다.

입상자에게는 대통령상, 국회의장상, 국무총리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교육부장관상, 전북도지사상 등이 수여된다.특히 판소리 명창부 대상인 대통령상 수상자에게는 2,000만원의 상금과 함께 국악인의 최고 영예인 '명창'의 호칭이 부여된다.전종목 학생부 및 일반부 예선의 경우 비대면 동영상심사로 실시되며 판소리 명창부 예·본선 및 전종목 일반부 본선에 한해 대면심사로 진행된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본선 대면 심사 시, 심사위원 및 경



연자 외 출입을 통제할 예정이며 모든 종목은 무관중으로 진행된다.부대행사는 취소했으며 이 밖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발열 체크, 손

소독제 비치, 경연장 소독, 출입자 명부 작성 등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남출/기자

# 목포문학과, '목포, 젊은 작가와의 만남' 운영

### 지역문인과의 만남을 통한 프로그램운영으로 문화체험 기회 제공

목포문학과에서 지역민의 문화역량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먼저 한국문학관협회 상주작가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역민과 함께하는 '목포, 젊은 작가와의 만남'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상주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경애 시인의 진행으로 10월 17일 오후 2시 첫 만남이 개최되어 '풍경이 온다-공간, 장소, 운명'을 시작으로 목포가 낳은 작가인 서효인 시인, 김효은 평론가, 김지수·김개영 소설가, 김해자 시인을 모시고 10월부터 12월까지 함께할 수 있다.해당 프로그램은 무료로 운영되며 참여하고 싶은 시민은 목포문

학과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면 된다.

이외에도 상주작가와 함께하는 다양한 문학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생생토크 독서모임', '독특낭독 문학', '해'설이 있는 문학관' 프로그램과 '유튜브로 만나는 목포문학관'을 통해 목포문학 자원을 알리며 시민에게 한층 더 친근하게 다가서고 있다.프로그램별 자세한 내용은 목포문학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문학관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예약의 도시 목포의 명성에 걸맞게 시민의 문화적 소양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앞으로도 추진하겠다. 시민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일/기자



# '2020년 제5회 우리소리축제' 개최

경상북도와 안동시가 주최하고 국악로문화보존회가 주관하는 '2020년 제5회 우리소리축제'가 오는 18일 오후 2시 안동댐 개목나무에서 개최된다.

제5회 우리소리축제는 대한민국 최고의 명인·명창들이 펼치는 한국의 전통소리와 놀이로 구성되며 특히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줄타기와 판소리·진도북춤·배뱅이굿 등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수궁가 준보유자인 정옥향 명창을 비롯한 신영희, 송재영 명창들의 판소리 무대를 시작으로 깊은 울림과 흥이 넘치는 우리소리의 축제로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국악로문화보존회 관계자는 "안동을 찾은 관광객들이 판소리, 민요, 아리랑 등 대한민국



대표소리와 지역의 소리가 어우러진 공연을 통해 우리소리의 전통

을 느껴보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영호/기자

# 미리내도서관, '2020년 작은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운영 재개

미리내도서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8월부터 중단되었던 '2020년 작은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공모사업을 10월 24일부터 재개한다.'작은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사업은 지역의 문화 접근성 향상 및 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역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작은도서관을 주제로 매달 하루를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이다.미리내도서관의 분관 도서관인 태장도서관은 10월부터 11월까

지 총 5회에 걸쳐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이 달에는 24일 여성독립운동가 강연, 28일 꼬마돼지 울인형극, 31일 그림책 음악놀이가 순차적으로 운영되며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전부 비대면으로 전환된다.작은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에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태장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도서관 관계자는 "도서관 휴관으로 인해 진행하지 못했던 사업을 다시 재개하게 되어 기쁘다"며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했으나 원주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최만식/기자



#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단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통과

영주시, 베어링산업 중심도시로.  
대한민국, 베어링산업 강국으로.

영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실시한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를 통과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지난 15일 영주시에 따르면 영주시와 경북 북부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사업인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대해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실시한 경제성, 재무성, 정책성 등 7가지의 항목 심의결과 사업타당성을 확보했다.



시는 지난 2018년 8월 국토교통부의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 이후 경상북도, 경상북도개발공사와 함께 기본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개발방향을 설정하는 등 협업체계를 구축해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통과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영주시 간부공무원을 비롯한 관계 직원들이 전국 500여개 관련 기업을 직접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기업 수요를 확보해 왔으며 시민 추진위원회와 국회의원, 경북도의원, 영주시의회 등 전 시민이 역할을 모아 이 같은 결과를 이끌어 냈다. 지난해 정부의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해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100대 핵심전략 품목으로 선정된 베어링은 자동차, 철도, 로봇, 항공 등 미래 유망산업의 생산성과 품질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산업이다. 영주시를 중심으로 베어링 국산화 등 첨단산업 육성 동력이 마련돼 지

역 불균형 해소는 물론 직·간접고용 5,000명 등 1만 1천여명 인구증가와 연간 835억원의 경제유발효과를 통해 인구소멸도시 위기 극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오는 2028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건설되면 항공, 철도, 고속도로 등 폭넓은 교통망을 두루 갖추게 돼,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의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기업들의 투자 유치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단 타당성 검토 통과를 위해 힘써주신 김진영 시민추진위원장님과 시민추진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도의회 신규사업 동의, 국토부 산단 지정, 분양가 차액 지방비 1,500억원의 재정확보, 산단 조기분양 등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지만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돼

승인용/기자

# 기업과 상생의 꿈을 키우는 진주의 투자환경

기업성과 수출경쟁력이 진주시의 발전

진주시는 산업단지 조성과 조례 개정 등을 통해 기업의 입지조건을 충족시키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전략산업 관련 기업의 유치를 통한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고 기업성장-지역발전이라는 선순환적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특화된 산업입지 조성과 임대전용단지 지정, 특별 투자지원 인센티브 마련, 경영안정과 기업경쟁력 지원, 맞춤형 기업지원 시책 등을 통해 그 어느 지역보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특화된 산업입지 조성 항공우주 산업의 70%가 집중되어 있는 서부경남의 입지적 특성을 살리고 항공우주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촌면 일원에 82만㎡ 규모의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항공산단은 올해 10월 준공예정인 인력양성을 위한 경상대 등 교육기관, KTL과 뿌리기술센터 등 연구기관 등이 소재해 있고 사천IC가 연결되어 있어 인력수급, 공동R&D, 물류유통 등 입지적으로 관련 기업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곳이다.

2014년 뿌리산업특화단지로 지정된 진주뿌리일반산업단지는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정상적으로 조성되고 있으며 세라믹기업들의 분양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세라믹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2020년 2월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함으로써 향후 뿌리산업과 세라믹산업의 중심지로 급부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항공산단과 뿌리산단 조성·분양이 완료되면 기 조성되어 있는 정촌산단, 지역혁신 성장거점 상평산단재생사업과 함께 항공공과 뿌리, 세라믹, 기계산업이 클러스터화되어 지역산업을 견인할 중심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대전용단지 지정 시는 코로나19, 보잉737MAX기 추락, 주주국의 수출규제 등의 악재로 수요한계에 부딪쳐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기업들이 초기 투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시행사인 LH와 함께 항공국가산단 내 임대전용단지를 지정하기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 국토부, 산업부 등을 방문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항공산단 개발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면서 임대전용면적 확대, 임대료 인하 등을 관련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실현될 경우 기업 경영안정화 뿐 아니라 비용절감에 따른 수출경쟁력 향상에 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주시 특별 투자지원인센티브 마련 지난해 6월 시는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해 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감면 등에 대한 규정을 조례에 명시했다. 또한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을 통해 지방 신·증설기업에게는 설비투자비용의 최대 24%까지 지원하고 있고 수도권 이전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에게는 토지대임가액의 최대 40%, 설비투자금액의 최대 24%까지 지원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금융지원과 함께 규제샌드박스제도도 적용해 기업이 부담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기업의 애로를 청취해 시책과 조례에 반영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경영안정과 기업경쟁력 지원 제조산업에 ICT를 융합해 모든 생산데이터·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활용되어 최적화된 생산운영이 가능한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지역기업 제품 및 포장디자인 개발 지원, 특허기술 해외출원 및 시제품 제작지원, 소재부품기업 공정혁신 기술고도화 지원, 중소기업 근무환경개선 지원, 창업기업 보증보험료 지원,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판로개척 지원 등 다양한 기업지원시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기업의 경영부담을 최소화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창업중소기업, 지식산업센터, 산업단지 등에 입주하는 공

장 등에 대한 감면과 관련해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한 권리구제와 고충해결을 위한 납세자 권익보호관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맞춤형 기업지원시책 시는 진주의 대표산업이던 실크산업의 침체극복을 위한 세라믹실크융복합첨단화사업, 항공우주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항공우주기업 시험평가기업지원사업, 기업의 수출 다변화와 판로확대를 위한 항공산업지원단 운영 지원, 기업의 시제품 제작을 위한 K-ICT 3D프린팅 지원 등 기업별 맞춤형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항공기업의 자립지원을 위한 항공핵심기술 선도연구센터 구축지원과 공공연구 성과의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으로 지역의 부족한 R&D기능을 보완함으로써 기업경쟁력을 제고하는 등 기업-대학-행정기관의 상생협력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건설한 기업육성을 지원해 나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진주시는 혁신도시 건설과 함께 항공우주산업의 70%가 집중되어 있고 경상대 등 교육기관이 다수 소재해 있어 전문인력수급과 KTL 등 전문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이 용이하다"며 "무엇보다 기업이 원하는 입지와 지원인센티브를 통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영광/기자

# 창원시, 방위산업 발전 위해 학·연·관 힘 모은다

경남대-창원대-전기연구원-재료연구소와 MOU 체결

창원시는 15일 오후 2시 시청회의실에서 경남대학교, 창원대학교, 한국전기연구원, 재료연구소와 '지역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허성무 창원시장, 박재규 경남대학교 총장, 이호영 창원대학교 총장, 최규하 전기연구원 원장, 이규환 재료연구소 부소장이 참석했다. 경남대학교와 창원대학교는 산학협력 및 네트워크를 통한 우수한 지역 인재 육성에 힘쓰고 있다.

한국전기연구원은 끊임 없는 설비 구축과 시험 기술 축적을 통해 세계 2위 수준의 공인시험기관 인정받고 있으며 재료연구소는 국가 소재산업 발전을 이끌며 '원

격'을 통해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시는 방위산업 육성으로 창원 경제 부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이번 협약 체결로 대학 및 유관기관들과 힘을 합쳐 지역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 함께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시는 5개 기관과 협약을 맺고 첨단 방산기술 공동 연구개발, 산·학·연 협력강화 등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선순환형 방위산업 생태계 모델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한 세부 협력 사항은 방위산업 분야 공동 개발 연구, 학술활동, 산학협력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방위산업 전문 인력양성 및 고용지원 등 지역 산업 연계 일자리 지원체계 구축 방위산업 진흥을 위한 워크숍 등 개최 연구 인력, 정보, 시설, 장비 등 공동활용 방산혁신클러스터 시범사업 부품국산

화 연구실 운영 기타 관내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학·연·관 제반 정보 교류 등 6개 분야이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이번 협약식을 통해 "대학과 연구기관이 방산 연구 인력과 연구를 공유하며 공동 연구 개발한 기술을 방산기업에 테스트베드로 적용해 글로벌 시장 수출을 통한 기업 이윤 창출과 더 나은 기술 개발에 재투자하게 될 것"이라며 "이 순환을 반복해 점점 발전된 기술개발과 성과 확산으로 방산기업 수의 창출 및 방산 전문 인력양성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5개 기관이 모두 하나가 돼 협력한다면 창원시가 방위산업 혁신의 대표모델이 되고 글로벌 일류방산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몽호/기자



## 대구 세트럼 대원 칸타빌

# 시민행복 도시미래

스마트시티 구축, 도시재생 사업, 산업단지 조성, 공영주택건설 까지  
시민이 행복한 도시의 미래가 대구도시공사에서 시작됩니다.

[www.duco.or.kr](http://www.duco.or.kr)

 대구도시공사

